JAN 1 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17－718 1982년1월9일(토) 1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January 9, Monday, January 11, 1982

한국, 대캐나다수출 전망 밝아

작년도 42.2% 늘어 4억3천만달러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작년 한해에 약 42.2% 늘었으며 1월부터 11월 말까지 수출액은 81년 목표액 4억8천만달러(미화)의 약 90% 인 4억3천1,07만9천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품목별로는 작년 9월말까지의 통계로 전해보다 61%, 전자제품이 5,800만달러로 37% 증가했다.

조성호 토론토무역관장은 이날 82년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목표액을 작년보다 약 20%정도 늘어난 5억3천만달러로 잡고, 경공업에서 중화학 시장으로 진출하려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관장은 또한 장기적전망은 더 밝아 현대자동차가 북미시장을 노리고 개발중인 월드·카가 83년초쯤 캐나다시장에 상륙하고, 현재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영창, 삼익등국산피아노도 가격, 품질면에서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작년도에 주종을 이룬품목은 의류, 전자제품, 신발, 철강, 합성수지 가방, 금속제 양식기(포크, 나이프등), 완구및 인형, 합섬직물, 모직물, 합판, 가죽제품, 타이어및 튜브류등이었고 이중 작년에 82%가 증가, 연간 3300만달러를 기록한철강류는 금년에 특히 기대되는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의 철강제품은 품질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뱅쿠버등지에서 건축붐이 일어나 수요가 늘고, 캐나다의 대철강회사인 스텔코(Stelco)가 파업으로 생산이 부진한 것도 전망이 밝은 이유로 들 수 있다고조관장은 말했다.

선박류에서 유조선, 오일탐사선도 캐나다가 10개년 경제계획에 유전개발을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의 노동값이 싼 점으로 보아 비록 캐나다선박노조의 압력이 있지만 가격면에서 유리하다. 현대조선은 이미 4척의 오일 탐사선 8천만달러어치의 주문을 받았다.

이밖에 운동화류는 캐나다 전체시장을 한국제가석권하고 있고, 컬러TV, 카스테레오, 전화기 세트가 캐나다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작년에목축용 젖소 4천두를 비롯, 한국에 작년 9월 현재 3억3천4백만달러를 수출, 4억1천만달러였던 80년 보다 18.5% 감소, 한가무역은 81년에는 한국쪽이 흑자를 기록했다.

북한인1명 남한으로 비당원 차별대우불만

(서울 8일=연합)한국국방부는 7일 하오 북한의민간인 1명이 자유를 찾아휴전선을 넘어왔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귀순자는 28세의 김용준씨로 7일 일찍 중부전선 철원 동북방 15km지점 국군전초기지에 투항했다.

김은 함북 운덕군 화학공장 기계정비공으로 김일성정권의 횡포와 비당원들에 대한 심한 차별대우에 싫증과 불만을 느껴 넘어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한국외채 $330억 81년 무역적자$55억

(서울 8일=연합)한국이 외국에 지고있는 부채의총계는 81년말현재 330 억달러로 한국 GNP의 54%에 해당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했다.

이협회는 정부에 보내는 건의서에서 한국의 외국에 대한 신용도를 유지 하기위해 국내저축등을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 81년도 무역적자는 55억 달러로 전년도 12억6천만달러보다 4배나 증가했었다.

새해 정분 나눈 신년교례회

토론토한인YMCA(총무 김창열)가 처음 실시한"교민신년교례회"가 지난 2일 하오 2시 Y회관(15 Robina Ave)에서 100여명의교포 참석, 조촐한 칵테일파티로 열렸다.

전택균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사장단, 김총무 합동의 기념케익 자르기가 있은 뒤, 참석자들은 다과를 나누면서 인사와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영사관 이 제공한 한국관광 안내 팜플렛들이 참석자들에 배부되었다.

자석으로 투시촬영 인체 해로운 방사선대신 이용

(워싱턴)사람몸에 해로운 방사선 대신 자석을 이용, 질병을 알아내는 새로운 질병검사방법이 발견됐다.

"MMR 정밀검사법"으로 불리우는 이 자석사용 진단은 현재 매사추세츠 병원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다른 병원들도 실험단계에 있다.

MMR 정밀검사는 자석의 전파를 이용, 인체사진과 내장기관의 사진을 찍어내는데, 이전에 사용되던 엑스레이사진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승 머리 길러 포교활동 편의위해

(서울 8일=연합)빡빡밀은 머리와 가사장삼은 수세기동안 불교승려들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바뀌어질듯.

한국에서 조계종 다음으로 큰 불교계종파인「태고종」은 종단 승려들의 머리모양과 승복에 관한 규칙을 개정, 머리를 기르게하고 종래의 전통적인 승려복대신 신사복이나 일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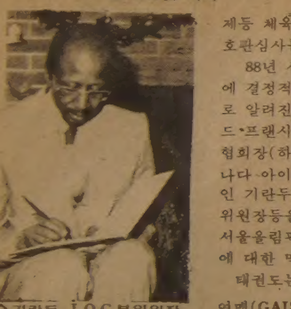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장 이규범스님은 8일 기자회견에서 급변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 승려들의 포교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오직「교화」승려들만 포교활동을 할때 한해서 일상복을 입을 수 있게 됐다.「교화」승려란 사원밖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설법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원안에서 계속 금욕적인 수도생활을 하는 승려들과 종교의식 거행시는반드시 전통적 가사장삼을입도록 돼있다.

김운용 (세계태권도 연맹총재) 오타와에 태권도의 서울올림픽종목채택논의

◇ 로이드 부의장(중앙)을 찾아 포즈를 취한 김총재(좌)와 이규현 대사



◇기란두 IOC부위원장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총재가 지난 30일 캐나다를 방문, 캐나다올림픽 관계자및 체육계지도자들과 만나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분제등 체육전반에 걸친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다.

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총재는 로이드·프랜시스 캐나다태권도협회장(하원부의장), 주캐나다 아이보리·코스트대사인 기란두 국제올림픽위부위원장등을 만나 태권도의 서울올림픽 종목가입 문제에 대한 막후외교를벌였다.

태권도는 이미 국제경기연맹(GAISF)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IOC의 승인도 받았으나 서울올림픽종목으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태권도는 86년 서울아세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 되었으며"88 서울 올림픽에 채택될 경우 한국측에 다량의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게임회장도 맡고 있는 김총재는 오는 85년의 제3회 월드게임은 토론토시가 개최를 신청, 채택될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야구, 태권도등 비올림픽종목을 중심으로 열리는 월드게임은 81년7월 LA에서 제1회대회가 열렸고 제2회대회는 83년에 영국런던에서 열린다.

김총재는 로이드 캐나다태권도협회장,기란두 IOC부위원장에게 서울방문을 초청, 수락받았다.

◁금주의 행사▷

(1월11일～17일)

◇1월13일(수)～17일(일): 하오7시30분, 미주한인예장 캐나다노회 연합부흥회
곳: 갈보리한인장로교회 (3817 Lawrence Ave. E. Scarbo.)
연락처: 755－7979(갈보리교회)

◇1월16일(토): 하오2시,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 정기총회
곳: 미시사가한인 연합교회(2500 Mimosa Row Missi.)
연락처: 791－9769(Mr. 김)

◇1월16일(토): 하오5시 모국동계체전 파견 하키선수단 결단식
곳: 한인회관(20 Mobile Dr.)

◇1월17일(일): 하오3시30분, 이처관씨 강연회
제목:「교회와 믿음의 온사」
곳: 쌩·폴 성당 강당
연락처: 863－0415(천주교 노인회)

社說 민주풍토 조성

—최근의 단체장선거들

최근 들어 이곳 한인사회에 고무적 민주풍토가무르익어 흐뭇한 화제를 낳고 있다.

과거 한때 먹구름을 던져주던 "선거부정" 운운의 불미로운 양상이 점차 가셔지고, 보다 민주적 공명선거와 입후보팀간에 잡음이 별로 일지 않는 것은 그 단체 구성원들간에 양식(良識)이 살아있고, 입후보자들이 지도자다운 도량을 지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예로, 실업인협회장, 노년회장, 벡커경영인협회장 선거가 모범적으로 치러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참여의식의 활성화(活性化)를 들 수 있다.

한때 "시간낭비!", "잡음이 귀찮아서" 등으로 구성원들이 자기 단체의 살림꾼을 뽑는 중요한 총회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경향이 있어 왔는데, 요즈음은 열기어린 참여도를 보여, 총회때마다 압도적 다수가 "깨끗한 한표"의 행사(行使)를 위해 모여드는 현상은 그만큼 민주적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기피·외면에서 참여의식 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 일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말썽도 많아지기 일수인데, 최근에는 선거열기에 비해 불상사나 잡음이 없음은 민주의식의 성장을 뜻하는것이라 하겠다.

입후보 상대팀을 헐뜯음으로써 그만큼 자기측 표발이 푸짐해진다는 재래식사고방식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도리어 자기표를 깎는 역조(逆潮)현상을 빚으므로, 현명해진 유권자들은 입후보자의 지도자다운 인간상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참여의식의 드높음으로 견주어 당선된 회장단·임원진은 선거운동중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실과 책임감에 철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공약은 당선을 위한 방편일 뿐"하고 휴지화시킴으로써 지지표들에 등을 돌리는 식의 처사는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은만큼먹혀들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고무적 현상은, 당선팀도 낙선팀도 똑같이 소속단체와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입후보였을 뿐, 결코 인간적 적대위치를지속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포섭하는 아량을, 패자는 또한 패배의식이나 적의(敵意)를 품고 의식적으로 멀어지지 않고, 단체를 위한 대아적 견지에서 적극 협조(참여)하는 자세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이 교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같이 서로 아끼고 위해줄 때, 진정 한인사회에는 밝음과 명랑화가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덧붙여 강조할 점은, 교포업자가 동족을 등치거나 바가지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겨레니까 믿고 일을 맡겼다가 백인보다 더 심한 바가지요금을 물었다" 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세상에「배신」처럼 치사한 행위는 다시 없을 것이다. 믿고 맡겼으면, 맡은측은 동족이니까 더한층 잘해 주어야지, 만만히 보고 바가지 씌우는 따위 인종지말적(人種之末的)소행은 만만코 없어야 할 것이다.

빛부시게 밝아온 새해! 저 태양과 같이, 푸른높은 하늘과 같이, 새해에는 개인적으로나 한인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밝고 맑은 풍토가 조성되기를 합장한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왕규
편집인: 이석현
광고부장: 송광호
편집자문위원: 윤방현

SUNLIFE
백용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5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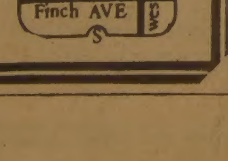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대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한인신용조합 직원모집공고

본 조합의 급성장과 더불어 보다나은 써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한인사회에 이바지하고저하는 봉사심이 강한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함.

구 분	여 자 직 원	외 무 직 원
모집인원	○명	○명
자 격	카나다 거주자로서 일반회계와 사무처리능력을 구비한자 영어에 가능하며 은행근무및 어카운팅 경험자를 환영함.	토론토거주 교민으로서 5년이상 경과자, 남녀불문.
근 무	Full Time으로 정상근무	Part Time근무시간과 주중근무날자는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제약치 않음.
대 우	능력에 따라 대우함	업적에 따라 대우함
제출서류	이력서, 한글·영어 각 한통	이력서, 한글·영어 각 한통
제출마감	1982년1월15일	1982년 2월15일

※기타 자세한 것은 본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REAN(TORONTO) CREDIT UNION LTD.,
641A BLOOR ST. W. M6G 1L1
TEL. 533－9387, 9388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주한미군 1500명 증원

북한에 대응, 군장비도 개선

(도쿄 5일=연합)미국은 총체적 전투력 증강의 일환으로 남한에 미군증원과 군장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5일 이곳에서 보도됐다.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 <니혼 케이자이>신문 은이 계획은 1500명의 미군증원을 통한 미군사력의 증강 및 9월까지 전자데이타 시설을 갖춘 현대적 정보부대 창설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계획은 북한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군당국의 정보활동의 확대와 2,650대로 추정되는 북한군 탱크와 맞서 싸울 미군의 전투능력 증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는 새 정보부대는 5~6백명의 미군 들에 의해 운영되며 금년 9월에 활동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정보 활동은 주로 정보통신위성이나SR기를 포함한 고성능 정보기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1천3백명 운집

새해장식한 염광합창단

서울 염광여고 선교합창단 초청 신년음악회가 지난 3일밤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약 1300명이 운집, 집이 무너질까 주최측인 한인장로교회 당무자들이 가슴조이는 가운데 열린 음악회에서 10명의 소녀로 구성된 선교합창단은 노래뿐아니라 전원이 기타, 북, 올갠, 만돌린, 아코디온등의 연주도 곁들여 청중을 매료 했다.

45일간의 북미주 순회공연차 지난 29일 토론토 도착, 4일 다음 기착지인 디트로이트로 떠난 일행은케네디·롸지앙로원(케네디×엘스메어) 방문, TV녹화를 곁들여 했으며, 한국노년회 총회 식상의 공연, 영락교회등 시내 한인계 교회순방 특송도 했다.

◇정영모 탁구협회 회장이 박태조 이사(왼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교 민 동 정

◆김인규(회계사)=7년간의 회계업무 경험을 살려 새해부터 501 Yonge St. (Yonge × College) Suite 207에 어카운팅·오피스 I. K. Kim, RIA를 개업했다. (B)960-5736(R)844-0178

64년 서울상대를 나온김씨는 75년 RCA, RIA 획득 81년까지 12년간 캐나다제조업체에 회계사 책임자로 근무했다.

◆최영호(초이스 레스트랑)=연말, 스카보로(7 Janelin Ter. Scar. 284-2927)에 새로 집을 사서 이주, "아파트생활을 청산, 아늑하고 차분한 심경"이라고.

회장에 김현모씨 사대부고 동창

작년 12월26일 망년파티겸 총회를 가진 서울사대부고동창회는 새임원을 선출했다.

1년동안 동창회 살림을 맡을 임원은 회장 : 김현모(7회, 연합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 김인규(12회, 공인회계사무소 경영)총무 : 신강용(16회, 무역진흥공사근무) 씨이다.

탁구협회연말모임

캐나다탁구협회(회장 정영모)는 지난12월30일 오후8시 뉴서울식당에서 년말모임을 갖고, 박태조, 박두화이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사업보고및 새해계획을 토의했다.

◇…지난2일 몰턴의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열린 국제 모터싸이클 전시에서 눈길을 끌은것은<야마하><할리즈>등의모터싸이클뿐이 아니었다. 이날 같은장소에서 82년도 미스 렉스·캐나다—캐나다에서 가장 다리가 멋있는 아가씨—로 뽑힌 밀턴대표 킴·윌리암슨은 방년 18세.

◁제5회 "신춘문예" 심사평▷ (1)

한판승부의 자세

이 석 현(심사위원장)

◇이석현 씨

이번 캐나다한국문인 협회 제5회 "신춘문예"는응모편수와 작품 수준면에서 예년에 비해 흉작이었다.

6개부문의 모집에서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평론은 단1편의 응모도 없었고, 수필과 희곡이 각 1편씩 들어왔으며 단편은 2편, 시부문은 7명의 18 편으로 전체 응모수의 태반을 이루었다.

응모작 감소원인은 이민의 문이 아주 좁혀져 신진문사가 적고, 역량있는 문사는 거의 이땅 문단에 등룡되었기에 문재기근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멀리 오타와, 캘가리, LA등지에서도 응모해 꽤 광범위한 인상을 주고 있다.

◇

해마다 심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응모자들은 "신춘문예" 응모자세를 갖추지 않고, 신문에 투고하는 기분 정도의 단순한 생각으로 임하는 것같아, 이 기회에 신춘문예에 응모하는 기본자세에 관해 노파심으로 언급한다.

신춘문예는 수십편의 응모작중에서 부문별로 1, 2편을 뽑는 일이기에 경쟁률이 심해, 수준이하의 작품은 예선에서 이미 탈락되고 만다.

심사의 주안점은 대개아래와 같다 하겠다.

(1) 소재, 테마

소재는 그 글에 담긴 내용이고, 테마(주제)는 그 주안점이 된다. 신춘문예 응모작의 소재는 자기다운 독특한 것이어야 하며, 테마도 독창적인 것이라야점수를 딴다. 기성작가들 이 이미 써먹은 소재나 구태의연한 주제를 답습한 작품은 참신한 맛이 없으며, 모방이나 추종에 불과하니 구태여 신춘문예에서 뽑아줄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소재와 특이한 테마를 추구하다가 지나쳐 비현실적인 줄거리나 비정상적 등장인물을묘사해, 그로테스크한 작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소재와 주제의 "새로움"은 작가의 사물을 보는 새로운 각도를 말한다. 문학작품이 존중되는 이유는, 흔히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을 밝혀내고, 거기에 작가 자신이 느끼는 새로운 것, 생각 하는 독자적 아름다움—즉 작가정신이 빚는 싱싱한 세계가 더해지는데 있다.

(2) 작품 구성능력

아무리 테마와 내용이참신하고 특이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작품화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글은 잡문이나 습작에 그치고 만다.

풍부한 어휘, 문장력, 맞춤법은 문인으로서의 기본실력을 나타낸다.

창작수업 기간—즉 작품과 대결하는 피나는 수련의 축적없이 좋은 작품이 우연하게 생겨나는게 아니다. 따라서 문장력, 어휘구사력은 습작기간의 길이를 말해준다.

작품심사의 마당에서는 응모작을 통하여, 응모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한 습작기간을 거쳐왔으며, 또한 얼마만큼 작가다운 자질과 보는 눈을 길러왔는가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단 한편만이 아니라 여러편 응모하는 것이 실력평가에 큰 도움이 된다. 소재를 엮어나가는 실력, 즉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구성능력과 유창한문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의 작품 여러 편을 훑어 볼 필요가 있게되는 것이다.

(3) 원고 쓰는 법

그 다음으로 필요한것은 원고 쓰는 법이다. 단정한 글씨로 정성 다해 쓴 글에 우선 호감이 가게 마련 이다.

(4) 기.승.전.결

집필에 임해서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원칙을 그대로 따를 것은 아니나, 이를 알고 있어야 하며, 끝손질(퇴고)에도 게을러서는 안될 것이다.

작품을 엮을 때 "도입"부터 "전개"부분까지 읽는 이의 눈을 단숨에 끌고 가는 박진력이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이 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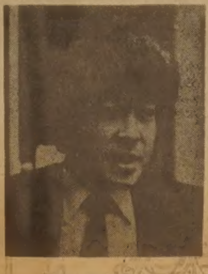
소재, 주제, 문장력은작품의 내용을 이루고 구성력은 작품의 형식을 이룬다.

신춘문예는 동일인의 작품 한편으로 결판을내는 것이므로 작가의 모든 능력과 재질을 이 한편에 불어넣는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즉 "한판승부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계속)

경제생활과 우리

투자상담=강상욱씨 제공(메릴린치 회사) ①



◇강상욱씨

금·은투자는 전문가와 상의

은행을 통한 거래는코미션 높아

◇서 론(개요)

부의 축적은 크게 나뉘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직장생활이나 혹은 매일매일의 영업을통해서 번 돈을 저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여 축적된 자본이 생기면 이 모인 돈을 불려감으로 「부」를 이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를 바로투자라 한다.

축적된 자본이 없는 사회에는 투자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나, 「부」가 축적된 사회, 혹은 돈이있는 사람에게는 투자는 절실한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 토론토 한인사회도 전자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상당한 「부」가 축적된 단계이며,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에 사회와 각 개인의 발전이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돈이 있으면 어떤 것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은 바람직하며, 여기서는 금, 은, 주식, 정부공채등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되는투자대상들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증권시장은 크게 (1)금은 통화, 곡물등을 취급하는 Commodity시장(先物市場) (2)T-Bill, 예금증서, 약속어음등 만기일 1년 이내인 증권들을 취급하는 Money Market(단기금융시장)(3)만기일 1년 이상인 정부공채 주식사채등을 취급하는 — Capital Market(자본시장)으로 대별된다.

우선 선물시장의 특수성을 지적, 그 특징을 알아보자. 금은을 딜러나 은행을 통해 살 경우는 대금전액을 현찰로 지불해야 하는 외에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 약점이다.

은이 온스당 10달러했을때, 은행은 사고 팔때 차액을 40전정도 두었으나은이 40달러 했을 때는 그차이를 무려 온스당 6달러까지 두었다. 이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할 때는 5,000온즈에 US$96 이면 되는 것을 은행을 통한 경우 US$3만이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지불했어야했다. 이렇게 엄청난 수수료 지불은 사실상 은행을 통해 은을 사는 투자가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

선물시장을 통해 금은을 살 경우는 도매시장인 만큼, 최소단위가 있다. 금은 100온즈, 은의 경우는 5천온즈로 이를 One Contract라 한다. 수수료는 Contract당 값의 변동에 관계없이 96달러 정도로 일정하다. 선물시장을 통한 구입의 예를 들면, 작년12월10일 금이 온스당 400달러정도인데 금년 2월에는 405달러이다. 2월달치를 사기위해서는 Contract당 5천달러 정도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런경우, 구매자는 2월달에 가서 잔금을 지불하고, 현물인 금을 인도받거나, 아니면 산 당일이라도 이윤이 남으면 팔 수가 있다. 2월달치를 405달러 주고 샀을경우 다음달 430달러가 되면 3,000달러를 투자하여 2,500달러를 벌 수 있다.

만약 390달러가 되면 1천5백달러를 밑지는 결과가 된다.

밑지는 경우 투자가는금값이 다시 2월달전 언제이건 자기가 산 405달러이상으로 올라가리라고 기대될때 그냥 가지고 있을 수있다. 잃을 경우는 손해본액수만큼만 추가로 증권회사에 지불해 주면 된다.

만약 2월에 가서 현물을 인도받지 않으려면 그때의 시세로 팔아 이윤을 취하든,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면 된다.

대개의 경우 투자가들은 현물을 인도받지 않고, 만기전에 언제든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팔아버린다. 증권회사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몇 Contract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모두 볼 수 있으며, 스크린에 나타난 값을 보고 가장 좋은 값에 오더를 넣게 된다.

토론토에서 뉴욕 시장의 금을 살 때, 값이 경쟁적일 때는 몇십초에서 몇분내에 이루어진다.

거래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고 팔기를 원할때는 현시세보다 몇십전인조금만 차이가 나도 즉시 거래가 성립된다. 정부, 은행 딜러등 많은 투자가들이이 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값이 여기서 결정되는만큼이러한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 막연히 금이나 은을 산다는 것은 결코 추천할 일이 못된다.

앞으로 각분야별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음호는 "투자가들이 왜 금이나 증권에 투자를 하는가" 를 알아 보겠다.

(계 속)

의붓 아버지

새映畵

▲조숙한 아리엘·베스는 대담하게 의붓아버지를 공격 함락시킨다.

닭기만한 초콜렛같은 미국영화에 식상하면 깨소금맛 나는 프랑스영화「BEAU-PERE」를 보면서 키득 키득 웃어보자.

29세의 나이트클럽 피아니스트 레미(패트릭·드웨어)를 두고 8년간이나 동거해온 사진모델 마르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여자없인 못사는 레미에게 남겨진 것은 고독뿐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14살짜리 마르떤의 딸 마리옹(아리엘·베스).

마리옹은 지신의 첫남자는 레미여야 한다며 옷을 훌랑 벗고 저돌적으로 접근, 피하다 못한(?) 레미는 마리옹과 사랑에 빠진다. 제법 심각하던 이 사랑은 얼마 못가고 레미는 또래의 피아니스트 샬롯(나딸리·베이)에 다시 맥 없이 빠져들어가는데 이 둘의 사랑을 빠끔히 들여다 보는 제집아이가 샬롯의 5살난 딸. 이러다보면 영화는 스물네시간도 계속 반복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버린다.

투명할 정도로 해맑으며 속이 좀 빈듯한 얼굴의 패트릭, 이 의지박약아가 『내 몸의 모든 부분은 성장한 여인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달려드는 맹랑한 아리엘과 나누는 대화 곳곳에서 코믹한 냄새가 물씬 풍기며 영화는 전반적으로 코미디텃취.

패트릭은 바람에 잎이 모두 달아난 나무처럼 여자를 찾아 헤매는 연기를 썩 잘해내고 옥같이 깨끗한 얼굴에 짙은 눈을 가진 아리엘도 대담한 연기를 쉽게 해나간다. 패트릭의 독백과 제3자의 내레이션을 드문드문 담은 이 영화는 실내장식과 소품에도 신경을 꽤나 쓴듯 마치 연극을 보는듯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프랑스영화를 보고나면 입장료 5달러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까닭은 그 내용이야 어쨌든 씹으면 씹을수록 향긋한 맛이 나서이다. 명우 모리스·로네도 나온다. 감독 베르트랑·블리에. 등급 R.

근하 신년

지난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E.E.

264—2311

신성우(Paul Shin)

스키강습 접수마감 박두 선착순

(35명중 24명접수필)

※접수 할 때 회비를 함께 보내주십시요

● 퀘벡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명산 "MT. 세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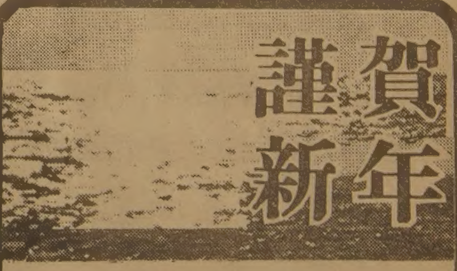
● 1월29일(금) 오후6시30분출발(브랜돈 스포츠사) ➡31(일)도착

● 그레이 · 하운드 버스여행

● 회비 : 개인당 $180

※자세한 문의는 : 598—3732(이건영), 533—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 한국일보사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후의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아낌없는 성원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바라오며, 한분 한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Shanghai Restaurant

Larry Yu

334 Spadina Ave.

864—9347

〈위니펙 봉제공장 견학및 공연 좌담회〉

위니펙 교포기술인

한핏줄 정으로 뭉쳐

위니펙은 의류제조업 의 중심지로 알려진 마니토바 주 수도로서 토론토에서는 약 1,600마일 서북방에 위치해 있다.

의류공업 분야에서는 몬트리얼 다음의 큰 도시이나 봉제업 단일업종으로는 캐나다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다.

80년11월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한국의 봉제사들은 270여명에 달하나 약 30명이 현지를 떠나고, 작년12월말 현재 249명이 남아있다.

제미나이 후리드봉제 등 10여개공장에 산재해 있는 봉제사 아가씨들은 생소하고 고되기만한 이민생활에 짜증도 나나, 하루 하루 일이 쉬워지고 영어단어하나, 둘씩 익혀감에 따라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는다.

어느 아가씨는 안그래도 숨막힐듯 빡빡한 이민생활인데 무엇하러 일만하냐고 반문하면서 오버타임은 절대 안한다고 한다. 그대신 여가시간에는 학교등을 찾아 언어를 익히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 둥지로 떠나는문제에 대해 아가씨들도 이제는 무작정 상경같은 바보짓은 안할 것이며, 위니펙에서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그들도 봉제사란 직업을 가진 위니펙 교민이지, "공녀"가 이들의 대명사는 아니라고 항의한다. 대사관, 영사관, 신문사등에서 자기들에게 지나친신경은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역사상 이렇게 많은 수가 단체로 이민온 것이 이것이 처음이면서도 아직도 많은수의 이민이 기대되고 있다.

이민관계자에 의하면 캐나다에는 봉제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로 남자들이 부족하다.

본기자가 28일, 위문공연 다음날 찾은 곳은 비교적 작업조건이 좋다는 후리드 공장. 만니토바한인교회의 이영선목사를 통해 공장장 윗트마이어씨를 만났다. 약 150대의 재봉틀, 큰 다림질기계등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이날은 마침 복싱데이라, 대부분의 위니펙공장들은 쉬고 있었다.

이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여성들은 20 여명. 카메라를 들고 후래쉬를터뜨리자 몇몇 아가씨는 도망간다.

한 아가씨는 태연히 재봉틀에 앉아 자연스레 포즈를 잡는다.

서울에 가족이 있다는김용숙(25)양은 이곳에 온지 2개월밖에 안됐다고 하고, 벌써 주당 약 200달러의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김양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미 7~8년의 경력이 있다.

공장에 따라 다르나, 이곳 봉제사 아가씨들의 수입은 주 130~250달러.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공장장 윗트마이어씨는 한인봉제사들을 우수한 기술자라면서 기술면의·능력보다 이곳 생활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기계에 능숙해지느냐에 따라수입도 늘고, 생활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동행한 이목사에 따르면 위니펙에는 이들뿐 아니라, 종전부터 이곳에 살던 교민들중 많은 수가 봉제사로 일하고 있다.

이목사 부인도 봉제사로 일하면서 이들과 공장주간의 문제점등을 도와 주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의 이민수를 늘리는가 하는것. 한국정부나 우리 교민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가져 이들의 문제점을 상의하고, 이들의 장래를 이끌어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공장에 동행했던 토론토동우회이사장 고광남씨의 말이다.

◇위니펙에 온지 2개월 밖에 안되나 벌써 주당 200달러를 받고 있다는 김용숙양이 환하게 웃고 있다.

◇한 봉제공장의 내부, 한국, 필리핀, 인도등 세계 각 지의 봉제사들이 몰려들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좌담회

"공연의 의의가 깊었다"

위니펙—토론토 친선의 밤 제안

밴드 마스터 권순근씨는 "25년 음악생활에서 이보다 보람되고 흥겨운 파티 나.

지난 연말 위니펙을 다녀온 위문단 일행은 5일같이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갈때는 반신반의 했으나 실지로 위니펙에 다녀오니 뿌듯한 그 무엇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善의 뜻으로 출발한 사업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윤방현 단장의 말대로 누구 하나도 이번 위문공연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데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

아가씨들과의 춤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연합상사의 김현모 사장은 "성탄을 맞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면서 우리 한인들이 위니펙이나 토론토를 가릴 것 없이 일체가 된 하룻밤이었다고 평했다.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 열심히 디스코를 추던신 세계여행사의 김창범 사장은 "그 아가씨들이 위문공연이라고 반발하는 것을이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위니펙—토론토 친선의 밤」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광남, 박광철씨등 동우회 간부들은 "실은 우리가 이같은 사업을 주선했어야 되나 신문사에서 먼저 했으니 우리는 적극 지원했다. 이들의 불만과 고생을 우리 회원들은 잘 알 수 있다. 앞으로 기회 닿는대로 이들과의 유대를더욱 긴밀히 갖겠다"면서 동우회가정과 아가씨들의 자매결연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회에 참석한가수 박소영양, 사회자 호세환씨등도 "바쁜 일정에 틈을 내었으나 공연중에는하나도 피로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의 공연이 어떤 결과를 남겼든지 이 사업이 한회로 그치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반대치 않았다.

◇공장에 포즈를 취한 공장장 윗트마이어씨와 동우회 이사장 고광남씨(좌), 그리고 봉제사 정은숙양 자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 $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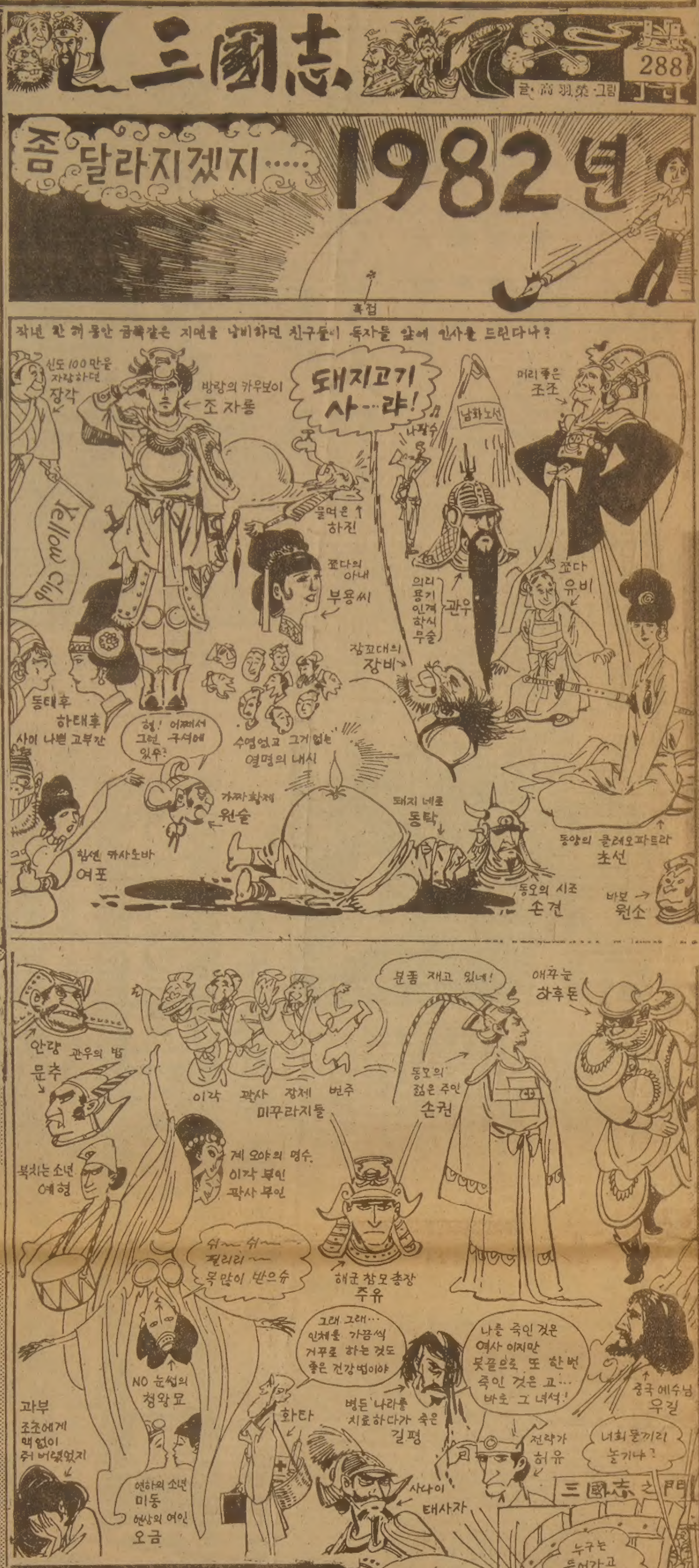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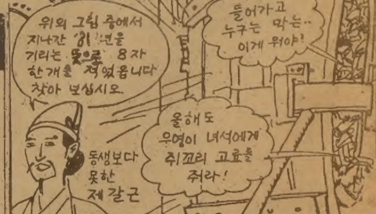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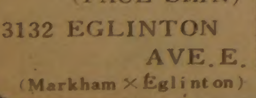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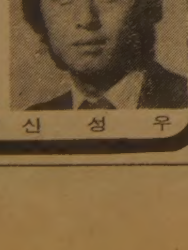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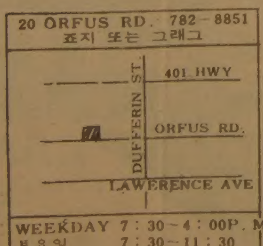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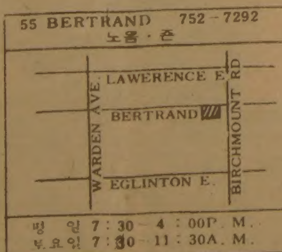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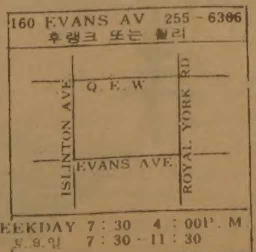
신 성 우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늘씬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한국영화상영

제목 : 〈태권도여자사범〉

주 연 : 신 성 일
윤 정 희
김 희 갑
허 장 강

동시상영 : 중국 정통 무술 영화
제 목 : 산 장 위 룡
주연 : 나열, 아카 호 름
상영시간 : 월~금—오후6시30분~12시까지
토·일—오후1시30분~새벽1시
중국영화관◇
여 궁 투 원
CHANGS THEATRE
SPADINA×COLLEGE
290 COLLEGE ST. ☎: 960—0589
〈현재 상영중〉

"국민 疎外感없게 노력을"

全대통령、새內閣 첫閣議 주재…通禁철폐 報告받아

"社會각分野 균형發展이룩 에너지·食糧절약운동 알차게"

全斗煥 대통령은 5일 『국민각계각층과사회각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생활의 質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疎外感을 갖는 국민이 없도록해 국민大和合을 이룩하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內閣에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경제적으로 82년을 安定基調를 완전히 굳히는 해로 가꿔나가도록하고 이러한 안정기조위에서 제2의 跳躍을 할수있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국무총리、부총리등이 새로 임명되는등 새로운 內閣의 陣容이 갖춰진것을 계기로 책임지는 정부、깨끗한 정부를 위해 전체국무위원과 전체공직자가 心機一轉해 소임을 완수하고 봉사와 信賴를 행정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정부는 원만한 勞使관계의 발전을 기하는데 각별히 노력하고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가 당면한 경제현황을 전국민에게 인식시켜 국민각자가 응분의 노력을 다할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말하고 『특히 에너지절약및 식량절약운동을 보다 더 알차게 전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전국민이 바로 나라의 主人이라고 하는 主人意識을 적극 함양토록해 國力을 길러가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88년올림픽및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등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安應模 치안본부장으로부터 내무부측의 夜間通禁해제에 따른 보고를 들은뒤 5일 밤12시를 기해 接敵지역과 취약지구를 제외한 전국일원에 야간통금을 해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이날 尹子重교통장관으로 부터 통금해제에 따른 교통대책을 보고받았다.

◇全斗煥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改閣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主宰하고있다.

임시國會 25일께

제109회 임시국회가 오는25일께 열릴것으로 알려졌다.

李鍾賛국회운영위원장은5일 『정부측의 요구로 열리는 109회 임시국회는 당초 18일께 열릴예정이었으나 정부측 사정에 의해 1주일정도 늦어질것같다』고 전망하고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측의 새해 施政연설을 듣고 劉彰順 신임총리에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틀간의 短期회기로 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李총무는 또 임시국회에앞서 14일~18일사이에 내무위와 문공위를 소집、通禁해제와 中高生의 頭髮및 복장自律化와 그에 따르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駐韓美軍力 증강 日本신문도 報道

【東京5日＝宋孝彬특파원】 미국은 오는9월까지 주한미군의 전자정보부대를 신설、한반도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육군과 공군의 지상공격능력 강화를위해 장비를 개선하는등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고있다고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또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이같은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병력도 1천5백여명 증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과 방위청이 확인한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은 북괴에대한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고 2천6백50대로 추정되는 북괴탱크부대에 대항하기위해 지상공격력과 기동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이에따라 주한미군은 9월까지 5백~6백명으로 육군의 전자정보대대를 편성하고 對전차공격용 지상지원기 A10 1개비행대를 올부터 신전배치(9백명의 요원증원)하는한편 전차공격미사일을 적재한 對전차 헬리콥터를 증강하고 M60탱크의 도입、自走式으야포의 화력증강및 로의전환을추진할예정이다.

羅財務 議員職사퇴 民正 金裕祥씨 承繼

民正黨의 全國區의원으로 入閣한 羅雄培 재무장관은 5일 丁來赫국회의장에게 議員職사퇴서를 제출했다.

國會法 133條에 의거、국회가 閉會중일때에는 의장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절차가 끝나는데 이에따라 民正黨의 전국구예비후보 3번인 金裕祥 총무국장(사진)이 議員職을 承繼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丁來赫국회의장으로부터 羅雄培의원의 議員職사퇴통고를 받은데이어 6일하오 전체회의를열고 金裕祥씨의 議員職승계를 결정、통보할 예정인데 金씨는 오는25일께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게된다.

◇金裕祥씨略歷 ▲서울출신·45세 ▲高大法大卒 ▲共和黨기획관리부장 ▲民正黨創黨발기인 ▲〃기획실장·전문위원실장·정책국장

中高「자유選擇과목」신설

宗教·實技·教養 수업등

84學年부터

中 週1시간까지、高 3년간8단위

문교부는 5일 확정、고시한 새교육과정에서 중·고교과정에 종래에없던 「자유선택과목」제도를 신설、오는8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했다.

자유선택과목제도는 중·고교의 총이수시간내에서 일정시간을 학생、각학교가 학교의특성에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수업시키는제도이다.

문교부의 새교육과정에 따르면 자유선택과목시간은 중학교가 週1시간까지、고등학교가 3년동안 8단위(1단위는 1주1시간씩 17주이수)까지로 돼있으며 이시간에 각학교는 학교개개의 특성과 필요에따라 종교교육은 물론、각종실기교육、교양강좌、교장의 훈화시간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수있게된다.

이날 문교부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고교교육과정이 너무경직돼 학교장의 재량이 전혀없었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개성을 살리면서 여유있는 교육을 시켜보려는것이 이제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새교육과정은 이밖에 유치원·초·중·고교의 연간수업일수를 대폭줄여 ▲유치원은 2백일에서 1백80일로 ▲초·중·고교는 2백10일에서 2백4일로 축소하는한편 학습내용도 쉽게했다.

특히 국민학교는 지금까지 수업이수시간에 재량권이 없었으나 총교과시간의 5%이내에서 학교장이 감축운영할 수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새교육과정의 적용시기는 유치원·국민교가 82학년도부터、중·고교가 84학년도부터로 돼있다.

새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로 나뉘었던 교육과정을 일원화시켜 기초·공통필수를 똑같이 이수하도록 했다.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중 2과목만 선택하던것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기초과정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통필수로했고 사회교육강화를위해 사회1、지리1、世界史 역시 공통필수로했다.

◇중학교＝2·3학년의 교과목수가 13과목에서 12과목이 됐고 음악 미술은 2학년 2시간、3학년 1시간으로 고정됐다.

警察간부大異動

警察大學長 元容九
治安本部1部長 鄭甲淳
서울市警局長 李海龜
釜山市警局長 李鈞範

정부는 5일 서울시경국장에 李海龜(사진) 치안본부제4부장、부산시경국장에 李鈞範 해양경찰대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경찰대학장에는 元容九 부산시경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발령됐다.

또 치안본부제1부장에 鄭甲淳 치안본부 제3부장、제4부장에 朴培根경찰종합학교장을 전보발령하는한편 제2부장에 柳來馨 강원도경국장、제3부장에 宋東燮 전남도경국장을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 발령했다.

해경대장에는 姜玟昌경북도경국장、경찰종합학교장에 金相祚치안본부경무과장이 승진발령됐다.

한편 金祥熙경찰대학장(치안정감)은 명예퇴직하고 朴英千치안본부 제1부장과 朴在植 서울시경국장은 치안정감으로 1개급 특진과함께 명예퇴직했다.

내무부는 이번인사에 따른 경찰국장등 경무관급의 승진 및 전보이동인사를 금명간 단행한다.

社告

「한국일보文化센터」創設

平生教育의 場…市民의 사랑방으로

千萬市民의 生活大學、「한국일보文化센터」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문화창달과 生活의 즐거움 創造에 언제나 남다른 정성을 쏟아온 한국일보가 새해를 맞아 새로이 시작하는 文化센터는、새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한 場으로서、취미와 教養이 꽃피는 市民의 사랑방으로서、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文化生活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칼리지로서 앞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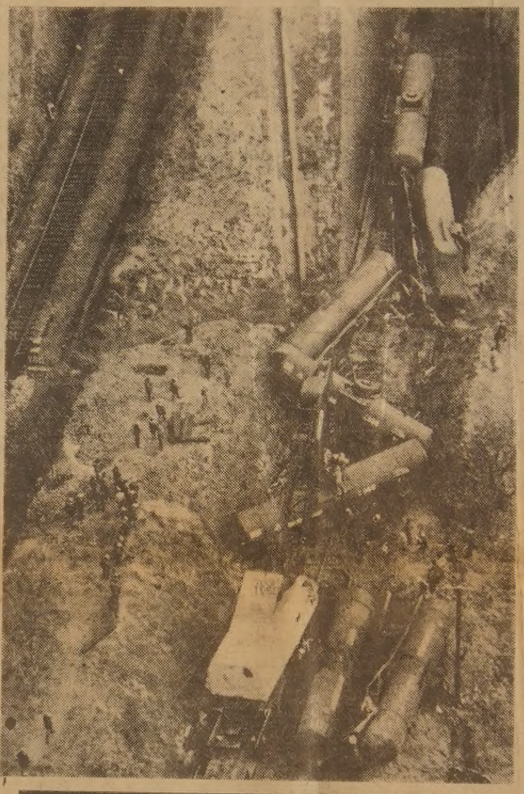
지금 우리를 주변을 둘러보건대 지난70년대에 이뤄진 고도성장은 그 성장에 뒤따르지 못한 우리의 生活의 質을 문제로 남기고 있으며、하루앞을 내다볼수없게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 情報와 새 知識을 얻어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있는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국민」의 자각과 再確認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교양은 우리의 나이에 비례해서 보다 主體的이고、보다 國際化되어야하며、그러기위해 平生을 계속하는 自己啓發만이 내일의 幸福을 期約합니다.

教養·語學·취미·건강등講座

나이·성별·계층不問 개방

한국일보文化센터는 그같은 期約의 마당으로서 오는3월초、한국일보社屋안에서 문을 열게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여러가지 시설과 문화적인 분위기가 이미 마련되어 서울의 새로운 名所로서 등장하고있으며、연령과 성별과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찾아올수 있는 친근한 空間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가 이제까지 그러했듯이、한국일보文化센터 역시 그 社會的 責務를 다하기위해 生活·教養·語學·趣味·工藝·健康에서 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고 폭넓은 강좌와 권위있는 강사진을 망라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칠것입니다. 배우고 싶고 꼭 배워야만 하는 많은분들、특히 主婦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參與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會員모집요령과 강좌내용、강사진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됩니다.

한국일보社



貨物列車탈선·전복의 現場

◇4일하오10시45분께 충북永同郡深川面覺溪里 경부선상행선에서 탈선 전복된화물열차. 충주비료공장의 비료원료인 납사를 운반중이던 탱크차가 선로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가운데 복구작업반원의 담배불 부주의로 탱크차 2량의 납사에 불이나 피해를 가중시켰다. 불길은 10시30분께 잡혔다. 【5일정오 本社세스나機上에서＝朴泰弘기자찍음·金海日항공부次長조종】

社會漫評

영영 다시는…

地平線

壬戌年이라 義犬·名犬·忠犬얘기가 많이쏟아져 나오는가 하면、「보신탕을 먹지말자」는 띠를두르고 慶北店村에서 서울까지 이색적인 도보행진 캠페인을 벌인 젊은이마저나와 화제다.

▼외국에선는 名士대우를 받는개가 흔하다. 名犬 바리는 1800년부터 14년을 살았는데 눈에덮인 스위스의 알프스에서 조난자를 40명이나 구출한 공으로 베른의 국립박물관에 박제로 보존되어있다. 센트버너드종인 바리는 조난자가 생기면 구출대를 곧장 안내했다. 한편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물러나긴했지만 닉슨은 이에앞서 부통령후보로선거전을치를때 개때문에 정치생명을 건진일이 있다. 1952년 아이크와 콤비로 선거전에 나간 닉슨은 때마침 텍사스州의 유권자로부터 1만8천달러나 되는 비밀헌금을 받은혐의로 후보를 사퇴해야될만큼 난처한 입장에 서게되었다.

▼닉슨은 일생일대의 TV연설을통해 이의혹을 씻기로 결심했다. 프랭클린·루스벨트가 여러 파라를 내세워 결백을 증명한 故事를 뒤따른것이다. 「내가 받은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얼룩무늬가있는 스파니엘이었다. 6살나기 내딸 트리샤는 개를 좋아했고 옆에서들뛰라고 맏하전 내외에서 이개를 기르는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닉슨의 연설은 영향더었고 동물애호가들의 박수속에 애견체커즈는 닉슨의 정치생명을 살려냈던것이다. 그밖에 알파베트로 자기이름을 쓸줄아는 린친친은 독사로부터 어린이를 구해내고 강물에빠진 앞집아이를 살려내는등 영화에도 많이나와 유명하며 플란다즈의 개는 우리어린이들에게도 잘알려진 동화의 주인공이다.

▼너무나 사람을 닮은 우리 진도개의 영리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白頭山근방 豊山개도 엽견으로 유명한 흰털박이 강인한 개였다. 또 달빛을 받으면 빛을내서길잡이로 쓰던 푸른새깔의삽살개는 지금은 볼수 없지만 강원도지방의 재래종이었다.

▼「山林經濟」에 보면 옛날엔 黃狗에 尾白을 제일 알아줬던것 같다. 足白은 吉凶양론이 엇갈렸다. 黑狗도 面白하면 伏邪를 물리친다고 믿었고、靑斑이 있으면 도적이 올때 잘 짖는다고했다. 黃狗가운데 입이검으면凶、純白은 요술을부린다고 싫어들했다.

▼개해는 개가 집을잘지켜서 큰사건이 별로없고 편안한해라고 한다. 착실한 업적을 쌓는 해라는 말이다. 경제안정을 굳히고 알뜰한 성장을 이룩하는 한해가 되기를 애견가들과 더불어 바라고싶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P
922-3111(B)
439-8885(R)

白堊館에 4頭體制등장

레이건의 클라크安保보좌관 任命의背景

地位도격상 마찰豫防

「키신저 莫強時代」복귀

調停의 名手… 外交문제엔 다소 어두워

◇訪美중인 슈미트西獨수상　美國을 방문중인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가운데)이 4일밤 만찬회에앞서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및 도널드·리건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있다.【워싱턴 4日AP聯合】

【워싱턴5日=曺淳煥특파원】레이건 대통령이 윌리엄·P·클라크국무차관(50)을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으로 4일 임명한 것이 워싱턴서는 「논리적 선택」으로 평가되고 …

◇클라크補佐官

폴란드事態등 協議
슈미트·헤이그會談

【워싱턴4日AP=聯合】미국을 방문중인 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은 4일밤 휴가중이던 플로리다州에서 워싱턴에 도착,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과 폴란드위기에관해 회담했다.

勞組지도자 西方추방

波검토 EEC大使들에 意思타진

【빈5日聯合】폴란드계엄통치자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 수상은 4일 서구외교관들과의 회담에서 억류중인 노조 지도자들을 서방으로 추방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서구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對폴란드 경제제재에 동조하지 말도록 촉구한것으로 5일 알려졌다.

戒嚴 부분解除
波, 46개省중10개

【바르샤바4日UPI=聯合】폴란드군사정부는 4일 10개성에 대한 계엄령규제조처를 5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美의 波제재 妨害안해"

EEC外相회담 蘇에 波위기介入중지촉구

【브뤼셀4日UPI·聯合=聯合】歐共市(EEC) 10개회원국들은 4일 폴란드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취한 對蘇및 對폴란드제재를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소련에 대해 폴란드 국내위기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美, 化學무기製造검토
世界大戰대비…13년간 中斷끝에

'82 国際気流
本社特派員들 各界 碩学 과의 対話

<2>

조지 워싱턴大學 페트로프博士 ㊦
——워싱턴曺淳煥특파원

—소련의 재래식군사력은 미국보다 우세한것으로 알려져있읍니다. 북한이 이 소련의 군사력을 업거나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다시 군사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떤군사모험도 중공이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중공은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많을 것입니다. 중공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한반도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金日成이 군사모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한반도 전쟁폭발에서 소련은 절대적으로 얻는것이 없읍니다. …

페트로프博士

中·蘇, 北傀군사모험 不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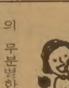
韓半島 전쟁 가능성 회의

政治안정·五輪유치등으로 한국將來밝아

세계 火藥庫는 中東…西歐·아랍接近으로 이스라엘孤立化

메아리

人間의 내일



◇스케이팅 즐기는 中共연인들　中共의 젊은연인들이 3일 北京의後海에서 손을마주잡고 스케이팅을 즐기고있다. 1인당 4센트의 입장료를 받고있는 이 스케이팅은 사실상 北京젊은이들이 즐길수있는 유일한 스포츠이다.【北京4日AP聯合】

엘살바도르서 연쇄爆發사고

日·中共간航路협의
国제民航기구 議長

나라紹介 弘報책자 文公部서발행 配布

失踪된 마르코스의 사위
작년12월 美서 비밀結婚
法廷기록서 확인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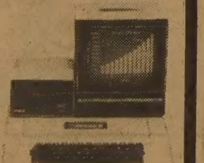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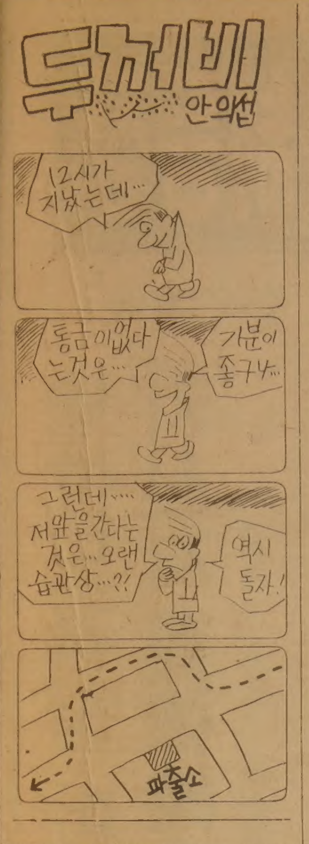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注油所영업제한 完全撤廢
土·日요일 自家用注油 제한등

주유소의 영업제한조치가 5일부터 전면 철폐됐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79년4월1일부터 에너지절약시책의 하나로 실시해오던 주유소에대한 영업시간제한과 토·일요일및 공휴일의 주유소에대한 영업제한, 자가용승용차에대한주유제한등일련의제한조치들을 야간통행금지해제와 관련, 전면해제시켰다.

이에따라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는 5일밤부터 전국모든주유소는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만 허용되었던 영업시간이 24시간 자유롭게되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영업이 허용되었으며 그간주유제한 대상이 되어왔던 자가용승용차들도 자유롭게 기름을 넣을수있게되었다.

이같은 해제조치는 통행금지가 계속되는지역에서도 한께 적용된다.

이 해제조치는 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각시도지사에게 통보됐다.

1等級 2백55점
검정合格者 학력고사 內申等級확정

문교부는 5일 검정고시합격자들의 내신성적산출 기준이될 「등급별 학력고사점수」를 확정, 각대학에 시달했다.

이 기준은 검정고시합격자외에 졸업년도가 오래된고교의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석차및 출석상황을 산출할수없는 자의 내신성적산출에도 적용된다.

이 등급표(별표)에 따르면 1등급은 지난해 학력고사 2백60점이상자로 했으나 이번에는 2백55점이상으로 5점을 낮췄고 각 등급도 지난해 10개등급에서 15개등급으로 세분화했다.

◇검정고시출신 내신성적기준

大入學力考査點數	等級
255점 이상	1
235점~254점	2
222점~234점	3
210점~221점	4
200점~209점	5
189점~199점	6
178점~188점	7
164점~177점	8
154점~163점	9
146점~153점	10
138점~145점	11
131점~137점	12
124점~130점	13
115점~123점	14
114점 이하	15

道公 金庫보관現金·증권 9백만원盜難

【城南=聯】 한국도로공사(경기城南市 金谷洞)에도둑이들어 경리과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유가증권등 9백여만원을 4일새벽 도난당했다.

도난사실은 상오7시께 도로공사청소부 김창순여인(43)은 경리과금고가 크게 부서진채 열려있는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경리과사무실북쪽창문이 부서졌고 금고가 망가져 있었다.

도로공사는 이 금고안에 현금 3백37만원, 자기앞수표 5만원권2장, 5백60만원짜리 예금증서등이 있었다고밝혔다.

주간女性 (416) 533-2861

3개大이상 지원·2重합격자엔 合格해도 無効로

문교부는 오는22일부터 실시되는 8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고교 대학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유의사항을 5일 각시도교육위원회등을통해 시달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유의사항은 이날하오2시에 서울교육원에서열린 서울시내 18개종합대학교무과장회의에서도전달됐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같다.

수험생·학부모

▲대학지원은 전후기별로 각각 2개대학까지만 할수있고 그중 1개대학만을 택해 전형에 응해야한다.

▲동일대학내 복수 지망은 3지망까지 할수있지만 1, 2, 3지망은 모두 동일계(인문·자연)여야 한다. 따라서 인문계와 자연계의 교차지망은 금지된다.

▲1차전형 합격자는 2차전형이나 후기전형에 응시할수 없다.

▲3개대학 이상 지원자나 2중 합격자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에의해 합격이 무효화된다.

대학

▲대학별로 모집단위별 지원자 접수상황을 수시로 발표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단 지원자의 성적분포는 비공개로 해야한다.

▲원서접수및 성적정리관계자는 원서접수일로부터 전형실시일까지 입시업무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원서접수마감후 지원자의 모집단위별 최종등록계도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예·체능계입시전형(공동관리 15~21일)에 잡음과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고교

▲3개대학이상 지원서를 발급한 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물론 학교담임교사는 물론 해당 담임교사도 응분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 원서를 2개대학외에는 써주지 말아야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通禁해제로 本社 徹夜取材태세 強化
深夜 讀者제보·告發 바랍니다

한국일보社는 통금해제로 밤을 되찾은 애독자여러분의 각종 뉴스제보를 받기로 했읍니다.

37년만에 없어진 통금해제를 계기로 한국일보의 24시간 철야취재태세를 보다 강화하여 애독자 여러분께서 연락해주시는 제보와 고발을 밤새 취재보도하기로 했읍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과 미담, 그리고 통금해제에 따른 새로운 비리나 부정을 고발해 주시거나 제보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한국일보는 애독자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독자여러분의 신문입니다. 통금없는 조간뉴스가 보다 알차게 제공되도록 애독자여러분의 끊임없는 제보를 기대합니다.

▲연락처=한국일보 사회부 1080~0726

駐베네수엘라대사관 婦人會 精薄兒돕기 誠金

駐베네수엘라대사관(대사 具忠會)의 직원·부인회는 카라카스주재 외교단부인회가 주최한 자선바자회에 참가해 모은 수익금 5백달러(美貨)를 서울 城北區 吉音洞 한미병원부설기관인 「한국 아동연구소내 精薄兒조기치료센터」에 전달해 달라고 5일 외무부를 통해 본사에 기탁해왔다.

설악산 大青峰60cm 嶺東지방에눈 解渴

【束草=聯】 영동북부지방에 지난3일밤부터 눈이내리기 시작, 5일낮12시현재 설악산 大青峰(해발1천7백8m)에 최고60cm의적설량을 기록한 가운데 계속 눈이 내리고 있다.

束草를 비롯한 高城·襄陽등 영동북부지방은 올겨울들어 계속된 가뭄끝에 47일만인 지난3일 하오9시30분께부터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 설악산 최고봉인 大青峰에 60cm, 陽溪산장등 해발1천m이상의 고지대에 10~15cm, 그리고 해안지대에도 6cm가량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

美陸軍長官에 敍勳

全斗煥 대통령은 5일상오 청와대에서 존·마시 美육군장관을 접견하고 保國훈장統一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周永福국방장관과 黃永時육군참모총장, 워커駐韓美대사, 위컴 韓美聯合司 사령관등이 배석했다.

대통령 영부인 李順子여사도 같은시간에 마시 육군장관부인을 별도로 접견, 환담을 나눴다.

◇화물열차탈선·전복사고현장에서 복구작업중 인부의 실수로 납사를 실은 탱크차에서 불이나 복구작업이 크게 지연됐다. 이불은 2대의탱크차의 납사를 태우고 약3시간만에 진화됐다. 【충북永同郡공보실제공】

37年습관…일찍歸家
——밤을 되찾은 通禁 철폐 첫날밤

◇마지막 通禁의밤 1982년 1월5일 상오4시 시청앞 광장. 「마지막 통금」이 사라지는 순간을 검문경찰이 지켜보고있다.

人跡드문드문 副作用없어
새벽1時넘자 술집도조용
警察비상령, 24시간 지새

드디어 「통행금지」가 사라진 5일밤 많은 국민들은 마음대로 새벽거리를 돌아다니며 37년만에 되찾은 자유를 마음껏 즐겼다. 그것은 「4시간」을 찾은게 아니라 「24시간」의 자유를 완벽히 음미할수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탈선이나 통금해제에따른 부작용은 크게 눈에 띄지않았다. 경찰은 통금해제 첫날 전경찰력을동원, 모처럼은 자유로운 첫밤에 오점이 남지않도록 비상경계령속에 24시간을 지샜다.

이날밤 서울·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도시의 번화가에서는 일부시민과 청소년들이 밤12시가 넘도록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버스, 지하철등이 연장운행된데다 택시가 철야로 영업, 큰혼란은없었고 새벽 1시가넘자 거리는 눈에띄게 한산해졌다.

또 술집등 유흥가에서도밤12시가 넘으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통금해제와 관계없이, 정상 퇴근했다.

그러나 일부 젊은이들과청소년들은 통금해제의 첫밤을 즐기려는듯 밤늦도록 문을 연 다방이나 음식점, 포장마차등을 찾았다.

또 통금해제와 함께 처음 실시되는 택시의 심야할증료 때문에 가벼운 시비를 벌이기도했다.

이날 치안본부는 전국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렸으며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도 교외생활지도반을 편성, 밤11시까지 거리의 학생들을 지도, 귀가시켰다.

學生귀가시간 9시

【光州=聯】 전남도교위는 5일 통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학생들이 밤늦게 밖거리를 배회하는등 학생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하기위해 학생들의 귀가시간을 밤9시로 각급학교장에게 지시하고 학부형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위의 이같은 조치는 자율화되고 통금이 해제됨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풍조가 해이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취한 것이다.

도교위는 이와함께 학생선도 다방지역에 학생선도위원과 생활지도교사들을 중점배치, 방학중 학생들의 야간탈선사고를 사전에 방지키로했다.

釜山 시내버스 2백4대 증차

【釜山=聯】 부산시는 5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위해 시내버스 2백4대를 증차키로했다.

시는 이들 증차버스중 51%인 1백5대를 변두리·신설도로등 취약노선에 중점배치하고 나머지는 일반노선에 배정키로했다.

어제 임시반상회

내무부는 야간 통행금지가 계속 실시되는 전방접적지역과 후방해안지역에대해 5일하오7시30분 임시 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상회에서는 이들지역이 대공면에서의 중요성때문에 통금이 해제될 수 없는 안보적이유를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야간통행금지 수칙을 지키는문제와 거동수상자 및 불온전단등의 신고체제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

중고생 校外생활지도 밤11시까지 延長

서울시교육위원회는 5일 통금해제와 어린학생의 지도를 위해 현재 밤10시까지 실시하고있는 학생 교외생활지도를 당분간 밤11시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

시교위는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교사와 장학사들의 교외생활지도비도 60% 올려지급키로했다.

또 시교위는 통금해제에 따라 南山도서관등 시내10개의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종전 상오7시~하오8시까지에서 밤10시까지로 개관시간을 2시간 연장했으며 앞으로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더 연장하기로했다.

또 지금까지 밤10시까지 개관하던 사설독서실의 경우 밤11시까지 연장해주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24시간 개관도 허용키로했다.

市内버스 人道돌진 2명죽고 3명重傷

5일상오10시30분께 서울東大門區 前農1洞 129의12 앞 국교앞길에서 金顯女씨(50·여·서울東大門區 前農1洞 168의15)와 金씨의 시누이 姜英愛씨(28)등 2명이 인도로 뛰어든 서울교통소속 서울5사9988호 567번시내버스(운전사 梁澤根·26)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지고 孫敏喆군(17·문일고1년)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京釜線 7시간不通 上行
覺溪터널입구서 貨物列車 탈선

【永同=鄭業鎬기자】 4일하오10시45분께 충북永同郡深川面覺溪里 경부선 상행선覺溪터널입구 (서울기점 206.3km)에서 경남伽倻역발 堤川행 제1148호 화물열차 (기관사 박찬희·48) 15번째부터 연결됐던 한국종합화학소속 납사운반용 40톤들이 탱크6량이전복됐다.

이날 사고로 5일하오6시까지 경부선 상행선이 불통됐다.

또 이날 상오7시40분께 탈선현장을 복구하기위해 출동한 대전지방철도청 보선사무소소속 선로부 朴聖在씨(35)가 담배불을 붙이다 실수로 전복된 탱크차에서 흘러나온 납사가스에 인화돼 불이나 탱크차2대에든 납사가 상오10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계속 불타는바람에 경부선 하행선도 10시50분까지 불통됐었다.

불이나자 永同 沃川소방서 소방차와 인근 미군부대 화학소방차가 출동, 약 3시간만에 불길을 잡았다.

탈선사고당시 화물열차에는 기관사 박씨등 3명이 타고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이 났을때도 주위가 야산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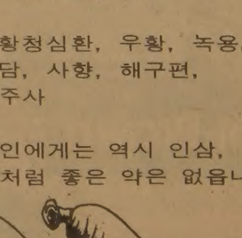
사고가 나자 철도청은 대전객화차사무소와 대구객화차 사무소 소속 인부 2백여명과 1백50톤짜리 기중기 2대를 동원, 복구작업에 나섰으나 갑자기 불이 나는바람에 작업이 지연돼 5일하오 6시에야 완전복구, 불통된 상행선을 통행시켰다.

철도청 관계자는 사고원인에 대해 「전복된 탱크차를 정밀분석해봐야 정확히 알수있겠으나 선로와 기관차에는이상이없는 것으로 미루어40톤용량의 탱크차에 납사가 가득차지않은 상태에서 커브길을 달리다 납사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힘으로 탱크차량이 진동, 탈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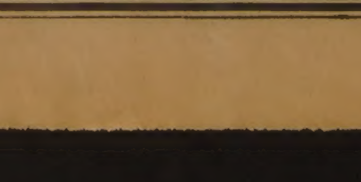
한편 永同경찰서는 불을낸 선로부 朴씨를 중실화혐의로 입건했다.

구독신청은 533-2361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新春文藝당선 短篇小說

母系史

李 麟

발짝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아침나절, 담당의사의 형식적인 회진이 한번 있었을뿐 몇시간 동안이나 혼자 누워있다. 아니,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많이 흐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혈액이 흘어든 양으로 봐서는 몇십분, 그래, 고작 몇십분에 불과한것 같다. 그 새, 정신이 흐미해져 잠깐 눈을 붙였고, 다시 눈을 떴을때는 농밀한 정적속에 긴 여름의 잔서(殘暑)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손끝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는 육신의 무력감보다도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머릿속을 거의 무념의 상태로 이완시키는 이런 정적이다.

정적은 사고력을 분해하는 일종의 농도를 갖고 있는것 같다. 아무리 정신을 가다듬어도 의식의 한 자락은 노상 그 고요의 덫에 걸려 허위적거리는 느낌이다. 흡사 물속에 아스피린이 녹듯이 조직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나간 뇌세포가 분해되면서 마침내 의식 전체가 고요의 늪속으로 형체도 없이 침잠하고마는듯 하다. 그러나 미상불, 그런 적막감은 내가 방화및 살인방조의 죄목으로 철창 깊숙이 수감되면서부터 나를 따라다닌 일종의 기류같은것인지도 모른다. 이개월 남짓, 외계와 차단된 영어생활속에 나는 이상하게도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오히려 점점 자신을 상실해가는 알지못할 수렁속으로 함몰되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기준에서라기보다 나 자신의 내부적인 변혁으로 내 의식 전체가 그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갑자기 귓속으로 무슨 소리가 들린듯하다. 청각끝에 바늘처럼 첨예한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이자, 톱밀같이 깊고 아득한 정적의 무게에 짓눌려 짜내어지는듯한 음향 한 올이 길게 청신경에 매달린다. 여름 한 낮, 미루나무위에서 우는 매미소리 같기도하고 벌의 붕붕거리는 날개깃 같기도하다. 고개를 돌려 한쪽 귀를 베갯잇에 묻자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져 순식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이명(耳鳴)이었다. 청각의 이상에서 오는 일종의 환청현상으로 그것은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정적의 늪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려고 허위적거릴때 홀연히 의식의 표면위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왜 이런 이명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심신이 쇠약하여 기(氣)가 부족해지면 맨먼저 감각의 제기관에 이상이 온다는것 정도다.

내가 처음 그 이상한 귀울림을 듣게된것은 수감된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때였다.

그 무렵부터 내 오감(五感)의 기능이 어느새 음합성 식물의 그것처럼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둡고 음습한 자신의 내부를 향해 신경질적이고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단지, 하루 스물네시간 구석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위해 살아있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에 두려운 미혹(迷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에대한 나의 견해는 대체로, 내가 젊다는것만 제외하면 오히려 수감생활의 즐거움이 될수도 있다는 쪽이었다. 시간이란 다만 사람의 의식이 깨어있을동안의 한 관행(慣行)일뿐, 실상을 손아귀에 잡아본적이 없기로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였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것도 결국, 시시각각 매 순간의시간을 상실하는데 지나지 않는거니까. 일각을 아깝게 사는 사람이나 아무런 저항없이 그저 흘러가는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나 결국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따라서 내게는 하루가 스물네시간이거나, 스무시간이거나, 또는 이백사십일일지라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시간에대한 이런 개념의 유희가 나를 즐겁게 했다. 나는 다만 시간이라는 평가할려한 흐름위에 그저 부딪치지않고 떠내려가기만 하면 그만이었고 그것을 가속하는 것은 이명의 자각증상이었다.

처음 내가 그 기묘한 놀이를 즐기게된 것은, 순전히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마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두번 의도적으로 이명을 일으키다보니 그것이 신기하게도 의식이 사주(使嗾)하는 방향에따라 환청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구축축한 가을비속을 걸을때, 그 빗소리에 섞여 잊고있었던 과거의 어떤 음향이 뚜렷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차츰 좋아하는 유행가 가락이라든가 <세익스피어>의 긴 방백(傍白) 따위를 재생시키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잡다한 여러가지 소리들틈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기울음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때, 나는 깜짝놀라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아기 울음소리였다. 그것도 다름아닌 바로 내 아들놈의 애절한 울음소리— 그래, 나는 도무지 그것이 아들놈이었다는 생각을 좀처럼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햇빛도 못본채 한덩어리의 응혈로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안돼, 제발 부탁이야, 인혜. 내 아기를 지워버리지만 말아줘…….

때때로 그날의 절망적인 내 목소리가 허공에 부딪쳐 귀를 아리게하는 반향을 일으키곤했다.

이명은 어느새 그쳐있다. 머릿속에 가득 찼던 소음들은 서로 부대끼고 상쇄되면서 의식밖으로꼬리를 감춰버렸다. 일렁이는 수면(水面)처럼 산란하던 정신을 다시 가다듬자, 주사바늘이 꽂힌왼쪽 팔에 쥐가 내렸는지 거의 감각이 없어졌다. 반창고로 고정시켜놓은 그부위부터 혈관은 터질듯이 팽배해져 표피밖으로 푸르스름한 정맥이 불끈 드러나 보인다. 그 팔에 투명하고 가느다란 비닐관이 연결되어있어 혈액은 계속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A형, 기질이 온순하고 섬세하며 감각적인 혈액형. 그것을 지켜본다. 누구의 혈액인지도 모른다. 혈액형이 같다는 이유하나로 얼굴도 모르는 다른사람의 피가 내 몸속으로 흘러와 온몸을 돌고있다고생각하니 문득 전신에 소름같은 근지러움이 돋아난다.

그러나, 수혈을 받지못했더라면 필경, 나는 죽고말았으리라. 아니, 죽을각오로 동맥을 끊었던것이니만큼 그것은 아마도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살의 행위가 그 결행의 비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삶에대한 유아적인 응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것을 나는 이해할수가없다.

내가 혼수상태에서 벗어나 맨처음 눈을 떴을때 시계에 들어온것은 조심스럽게 나를 지켜보고있는몇개의 눈들이었다. 그것이 다시 몇사람으로 구분되고, 그 얼굴들을 가려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었다. 두사람은 흰옷을 입고있었고 나머지 한사람은 감색양복에 정중하게 「넥타이」까지 매고있었다. 지금은 여름일텐데…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사내를 올려다 보았을때 사내는 반가운듯이 불쑥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나, 알아보겠소?」

사내는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가리켰다.

누굴까.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혹,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 혈색좋은 얼굴과 오뉴월 물호박처럼 번질거리는 반쯤 까진 이마. 어느 모로보나 오십줄에 접어들었음에도 마치 삼십대 중반의 한창인 나이처럼 보인다. 나의 주위에 저런 근친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누군가 곁에서 일러 주었다.

『담당 검사님이시다. 걱정이되어 오셨단』

그러자, 사내는 오만스럽게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더니 힐책하는 투로 말했다.

『왜, 이따위 어리석은 짓을 했어? 임마, 그런다고 지은 죄가 가벼워질 줄 알아?』

사내의 말꼬리에는 직업적인 비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자코 눈을 껌뻑거리며 그 말의 이면성(裏面性)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비로소 어떤 막연한 현실감이 차츰 형태를 드러내며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자살은 일종의 고백이라고 했던가.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수감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죄과(罪過)를 인정하고 뉘우치거나 단죄하려는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되면 그것은 곧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는 결과가 될것이고, 그러면 나는, 가끔씩 검사가 위협조로 으르듯이, 아마도 무거운 형량을 받고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코 무거운 형량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대체로 나에대한 검사의 분석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에서 방화를 했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소사(燒死)한 것으로 심증을 굳히는 모양이었다. 내가 잠자코 긍정도 부정도 않은 채 멍하니 듣고 앉아있노라면, 그의 기세는 한층 독의해 졌다.

첫째, 그는 평소 어머니에대한 나의 혐오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에대한 어머니의 거의 편집광(偏執狂)적인 익애(溺愛)를 들어, 어머니의 한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가되려 애썼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피해의식이나 원한에 얽힌감정적인 충격이 시간이 지남에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온 동거인이나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인데, 나의 경우 그것은 충전된 감각에 불을 붙였고, 다시 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혐오감에 인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심리학적 분석은 워낙 그럴듯하여 잠자코 듣고있노라면 과연 「그랬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끝내 입밖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왜지 그의 논리가 동기유발에서 결과까지 거의 완벽성을 갖추고있다는 것에 나는 공감할 수가 없었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우연이나 우발성(偶發性)에 관계없이 그처럼 완벽한 틀에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곧 그 이론의 한계성일 수도 있었다. 일테면 이 사건의 특수성은 그가 지금까지 읽아넣어온 숱한 범법(犯法)행위의 굴레안에 어쩐지 잘 들어맞지가 않는것 같았다. 그도 어렴풋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가 아무리 어려운 원서를 뒤적여가며 내게 알맞은 틀을 짜 맞추어도 나는 쉽사리 그속에 갇힐것같지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초조해하는것 같았다. 때때로 그는 나를 불러다놓고 몇번이고 같은 질문을 확인삼아 하는가하면 버럭 신경질을 내기도 했다.

—임마,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불에 타 죽어가는 판에, 뭐? 불구경을 했다고? 이자식이, 지금 나하고 농담하자는거야?

그는 구둣발로 시멘트바닥을 쾅 굴렀다. 나는 놀란듯이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신경을 건드려서 좋을 건 하나도없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생사여탈의 칼자루를 한 손에 쥔 자이므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불구경을 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당신 가까이 나의 근접을 허용하지 않았기때문이기도 했다.

—들여다보지 말아라. 안으로 문을 걸어잠그며 어머니는 준엄하게 말씀하셨다. 자로 그은듯이 곧은 외가르마와 한가닥의 흐트럼도없는 머리카락의 윤(潤)이 어머니의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고있었다. 나는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내 탓인양, 민망하고 송구스러워 자리를 물러났던 것이다.

어머니가 지병인 간질의 발작조짐을 미리 예감하시고, 화기(火氣)를 없앤뒤, 한 옹큼 물에 적신 솜을 준비해서 방문을 잠그는 날이면 으레 그런 하명(下命)이 계셨다.

어머니는 결코 당신의 치부를 성장하는 자식에게 보이고싶지 않았을 것이다. 입가에 허옇게 거품을 물고 눈알을 뒤집으며 마른 장작개비처럼 전신을 뒤틀던 모습—언젠가 목격한 어머니의 발작모습은 내 머릿속에 끔찍하게 각인되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철이 들면서부터 나는 의식적으로 어머니의 그 현장을 피했고, 어머니 역시 내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하시는것 같았다. 그러나 발작의 빈도는 차츰 늘어나서 한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던것이 최근들어 일주일 간격으로 빈번해졌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대부분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친뒤, 머리손질까지 하시고는 들어갔으며 마찬가지로 멀쩡하게 문밖으로 나오시곤 했으니까.

어머니의 칩거벽은 자연 집안으로만 국한되어 바깥 출입이 거의 없어졌다. 그런 탓인지, 집안의 가구들이며 세간 집기들이 어머니의 손끝에서 하나같이 윤(潤)을 내고 있었다. 마룻바닥에서부터 장롱, 경대, 문갑이며 부엌살림과 마당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허구헌 날 어머니는 흡사 무엇에 들린 사람처럼 닦고 또 닦고, 쓸고 또 쓸고 하셨다.

어머니가 그렇게 닦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혹시 저렇게 걸레질을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신게 아닌가싶을 정도였다. 아니면,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속에 미처 연소시키지 못한 그 무엇을 그런식으로 달래고 계셨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그런 병적인 정결함이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졌다. 집안에 들어설때마다 어딘가 한군데쯤 어수룩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할것도 같았다. 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그 다스리지못한 한스러움속으로 빨려들어가버릴 것만같은 두려움이 몸의 어느 구석에선가 곰팡이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더구나 어머니가 그러한 지병으로 인해 나를 밴 채, 젊은 나이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리 모자(母子)를 한 운명의 끈으로 결속시켜 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피는 내 몸 구석구석에도 흐르고 있을것이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칠때마다 나는 온 몸에 소름이 돋는듯한 전율을 느끼곤 했었다. 아마도 내가지금까지 줄곧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면 그것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크고 또한 질긴 것이었다.

—내게는 너뿐이다. 너하나 보고 이날까지 모진 목숨 부지해온거다. 유년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온 그 한마디는 내 가슴 깊숙이 무거운 앙금이 되어 의식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주술이었다고 할까. 어머니가 일생을 통해 걸어 놓은 그 주술의 덫에 걸려 내 일상의 자잘한 것들은 무참히 찢어져 나갔다.

일테면 나는, 어머니의 정원에 잘 손질된 한그루 화초와 같은 것이었다. 유년기의 반짝이는모든 가능성과 뻗어나가는 생명의 가지들을 어머니는 당신의 뜻대로, 소망대로, 자르고, 꺾고, 키우고, 다듬어 나가셨다.

나는 아무것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국민학교오학년때까지도 어머니는 내아랫도리를 발가벗겨놓고 대야 한가운데 세워놓고 정성들여 온 몸을 닦아주시곤했다. 어머니의 다섯 손가락이 내 겨드랑이와 목덜미와 사타구니 사이를 흡반처럼 끈끈한 감촉으로 감겨올라치면 나는 왠지 섬뜩 섬뜩한 오한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한없이 마룻바닥이나 윤내고있던 어머니의 손끝의 한이 어느순간, 내육신위로 전이(轉移)해온듯한 두려움 그것이었다.

나는 도저히 어머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것 같았다. 나에 대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집념이 차츰 숨막히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씩 어머니로부터 도망칠 궁리를 하기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나는 물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했다. 자식이 어머니에로 향하는 본능적인 경외심외에도 나는 어머니의 습성이나 어떠한 결함까지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었다.

어머니는 자색(姿色)이 뛰어난 분이셨다. 게다가 일종의 심한 결벽증까지 지니고 계셨으므로 당신의 몸단장에는 한군데 소홀함도 없으셨다. 간혹, 어머니가 한가닥 흐트럼없이 머리손질을 하시고 풍만한 옥색 모시옷으로 치장하시고 바깥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대었다.

—아까운 여잔데, 어쩌다가….

—그래도 장래로는 걱정없겠구먼, 저리 큰 아들이 있응께.

어머니는 대부분 못들은 척 하셨지만 내 손목을 꼬옥 힘주어 잡으시는 것으로 그들의 입방을 견디어 내시려는듯 보였다. 그때, 내 손아귀에 가해지는 힘은 열마디의 당부보다도 더 내 가슴팍에 와닿아, 나는 문득 눈앞이 아득해지곤 했었던것이다.

어머니는 한번도 아버지와 그 쪽 사람에 대해

내 육신은 비로소 그 오랜 주술의 끈에서 풀려나…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때,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뒤여서 나만한 아들 딸을 거느린 가장이었다고하는데 원래 반가(班家)의 자손이었던 아버지가 당시로는 드물게 어머니와 연애결혼이란것을 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종가(宗家)의 종손이었던 그 가문에 나와같은 증손을 원치않았으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시집살이 반년도 채 못되어 그 집 문밖으로 쫓겨나왔고, 죽어도 그쪽 귀신이 되리라는 친정집의 질책과 시가의 냉담한 반응사이에서 당신이 택할 수 있었던것은 죽음, 오직 그 뿐이었다.

때때로 어머니는 그때의 심경을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손톱 발톱까지 깨끗이 깎고, 속옷부터 갈아 입었지. 행여 죽은뒤라도 남에게 흉이되고 그 쪽에 누를 끼칠세라, 여러모로 생각했다. 죽을 사람이 산사람 걱정을 하게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느냐. 바깥에서 죽자니 자연 횡사가 되어 시신이라도 차마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지, 할수없이 친정집 별채 대들보에 한 길이 넘는 광목 띠를 매달았지. 올가미를 만들고, 올라갈 발판까지 준비해놓고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해지더구나. 사는것도 그렇지만 죽는다는 것도 별게 아니더라. 작심을하고, 디딤판을 올라 서려는데, 글쎄, —느닷없이 뱃속에서 무엇인가 툭, 뱃가죽밖으로 차져 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옆구리를 쿡 찌르는듯한 충격에 순간적으로 숨을 헉, 들이마시고는 무슨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배위를 만져보니 뜻밖에도 뱃속의 아기가 첫 태동을 시작하고 있지않은가!

—경이로왔다. 목숨을 포기하려는 어미 뱃속에 천지를 모르는 어린 새끼가 그렇듯 힘찬 태동을한 줄이야.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더구나. 내 한 목숨은 이미 내것이 아닌 것을.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문득, 살아야겠다는 강한 도전이 가슴밑바닥으로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

결국 어머니는 그날 밤, 야음(夜陰)을 타서 몇가지 자질구레한 생필품을 챙겨들고 집을 나서셨다. 부모님이 거처하시는 방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창호지를 적시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결심을 알고계셨던 것일까? 그녀가 소리죽여 몇번이고 마음속으로 하직 인사를 건넨 뒤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질책하는 듯한 친정 아버지의 메마른 기침소리가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는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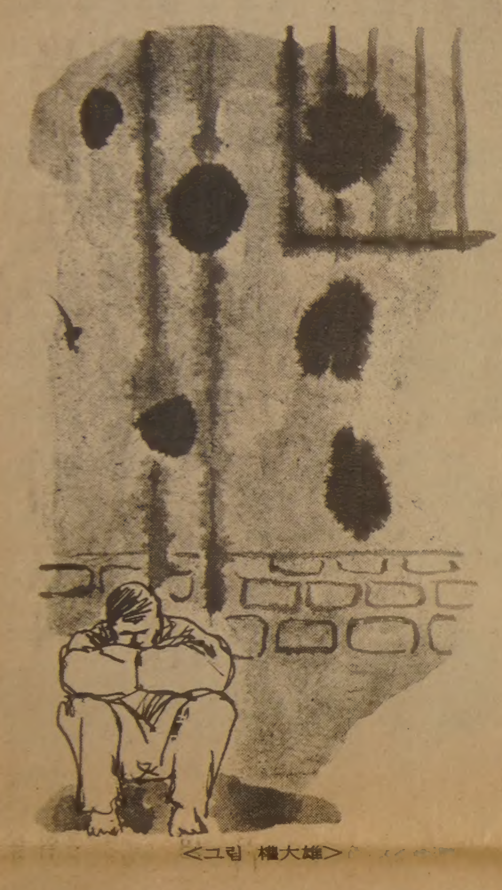
방문이라도 그때 한번 열어봐 주셨더라면…

그때의 한이 얼마나 골수에 사무쳤던지 어머니는 당신 생전에 풍문에라도 친정쪽 소식을 듣고자 아니 하셨던 것이다.

내가 자란 남해안의 바닷가 마을은 전혀 어머니의 연고가 없는 곳이었다. 바람 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그렇게 떠내려와 발붙인 곳이 남해의 황량한 섬 메물도(島)—.

사철 바닷바람이 가난한 어부들의 가슴속을 공

<6面으로 계속>



<그림 權大雄>

當選所感

日常의 아픔을 서른세살의 十字架에 지고

타인의 자로서 자신을 재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그러나 타인의 자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더욱 공허한 일이리라.

내가슴속에는 언제나 자하나가 부러져 피를 흘리고있었다. 그피는 내출혈되어 골수깊숙이 응혈지고 일상은 보이지않는 규범속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가슴밑바닥이 가뭄속의 논바닥처럼 타락갈라지면서 나는밤마다 갈증에 허위적거렸다. 그때 내게 한모금의 냉수를 들려넣어준것은 누구의 따스한 손길이었을까?

보이지않는 손, 들리지않는 음성이 나를 채찍질하고, 눈흘기고, 야유하는것같았다. 그 모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디로든 달아나지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서른셋에 가까왔다. 구태여 서른 셋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마련이다.

졸고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 아직은 익명을 벗을때가 아니어선지 그저 부끄러울따름입니다. 열심히 쓰라는 격려로 알고 정진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麟씨 약력>

▲50년=慶南 釜山 출생

▲71년=마산교육대학졸업

▲71년=「경남매일」에 소설 「왼손으로 친한 악수」로당선

▲현재=부산 동항국교교사

<한국新春文藝 小說부문 심사위원 李範宣씨 (右)와 河瑾燦씨.

단편소설 審査評

脫出練習·母系史 두편 마지막까지 競合

母子間 深層心理 세련된 文章으로 묘사

本審에 넘어온 스물한 편가운데 몇 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갈등이 오지않고, 新人다운 별 특색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범상한 수준에 머무른 작품들이었다. 소설의 대상인 인간과 사회를 진지하게 보는 눈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차적으로 「母系史」「脫出練習」「나타의 겨울」「구급요법」「우리들의 덫」「狂夫記」「業報」일곱 편을 선정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業報」는 이야기가 재미있기는 하나 문장에 신선미가 부족하고, 展開가 平易해서 衝擊感 같은 것이 오지 않았고, 「狂夫記」와 「구급요법」은 문장도 괜찮은 편이지만 스토리의 전개에 作爲的인 데가 있어 리얼리티가 부족했고, 「우리들의 덫」은 단편소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쓴 작품이긴 했으나, 어딘지 稚拙이 느껴지는 小品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타의 겨울」은 세련된 표현과 壓縮美 같은 것이 호감이 갔으나, 說得力의 부족이라 할까, 전달되어 오는 것이 모호해서 主題부터가 우선 투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섯 편을 제외하고 최종으로 <母系史>와 <脫出練習>두 편을 놓고 논의를 했는데, 두 選者의 의견이 <母系史>쪽으로 흔쾌히 일치했다.

<脫出練習>은 치열한 散文精神 같은 것이 다가오는 녹녹한 솜씨의 작품이었으나, 주인공의 고뇌를 나타는 내레이터를 통해서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 濃度가 희박해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의 탈출만이 구원의 길인지 의문이 가기도 했다. <母系史>는 어머니의 過剩愛情으로부터 자유로와지려는 아들의 深層心理가 유창하면서도 세련된 문장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는 우수한 작품이다. 恨 많은 어머니가 스스로 불에 타 죽는 장면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장래가 촉망되는 新人을 얻은 듯한 느낌이다. 앞으로의 精進을 지켜보고 싶다.

河瑾燦
李範宣

협력해 주십시오

메트로·토론토경찰에 대한 항의를 접수하는 새 독립기구가 생겼다. 시민이 책임자로 있는 이 기구는 경찰이 봉사하는 시민과 경찰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온타리오 의회가 제공한 새 법에 의하면 시민은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 시민들은 항의접수기구에 직접 항의한다.
- 항의가 30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받는다.
-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

항의기구 책임자는 독립적인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는 시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시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다.

R. Roy McMurtry
Solicitor General

Paul Godfrey
Metropolitan Toronto
Chairman

파 수 꾼

항의기구 책임자는 캐나다시민자유연합회의 최고 법률고문이었던 변호사 시드니·린든(Q. C.)씨이다. 그는 형사법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양심적인 시민이다.

그의 책임은 경찰에 대한 모든 불평불만을 검토하는 것이다.

"I have the highest regard for him as a civil libertarian and for his appointment... He is a most credible person and an excellent lawyer." – Dr. Dan Hill, Special Adviser to the Mayor's Committee on Race and Community Relations, Toronto.

"I for one, have great confidence in Mr. Linden." – Alan Borovoy,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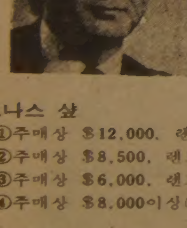
"...His reputation is excellent and completely acceptable." – Robert Nixon, Liberal M.P.P. and former Opposition Leader.

"The Council feels that Mr. Linden is a very capable criminal lawyer and will discharge his responsibilities with great awareness and with fair dealing." – Multicultural Council in Greater Toronto.

이 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마련됐다.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이 기구에 접촉한다. 협력해 주기를 부탁한다.

문의처 : 963－114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배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월1000달러)
~~②주매상 $12,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新春文藝 당선詩

馬夫

朴守燦

지친 저녁 귀가에는
어느새
어둠이 따라와 걸었다.
눈덮인 길을 미끄러지며
고삐에 매달려
끌려가던 희뿌연 달빛
主人의 기침 소리를
조랑말의 눈동자는 바람에 놓치지
않으려고
그저 애쓸 뿐 인데
자꾸 바람은 살내음을 비집고 들어와
뼈속깊이 묻히려 한다.
신작로 미류나무 사이로
밤안개를 가르며 날던
기러기들의 圓舞
너희들의 가냘픈 曲線만큼
휘어진 나의 척추는
조랑말의 등위에서 휘어져 날고있다.
이제 해나무재를 넘으면
토담집 불빛이 막내놈 웃음처럼
새어나올때
숨죽였던 방울소리 다시 들리고
주머니속 동전몇닢은 銀貨로 살아나고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햇빛이 있는 차난이라고
바람은 살에서 빠져나와 바람으로
달리고 있었다.

詩審査評

◇한국新春文藝 詩부문심사를맡은 具常씨(右)와 黃東奎씩.

「病床」 「冥王星」등 水準級이나 감수성 부족
「馬夫」는 人間愛와 감각표현 자유로운 秀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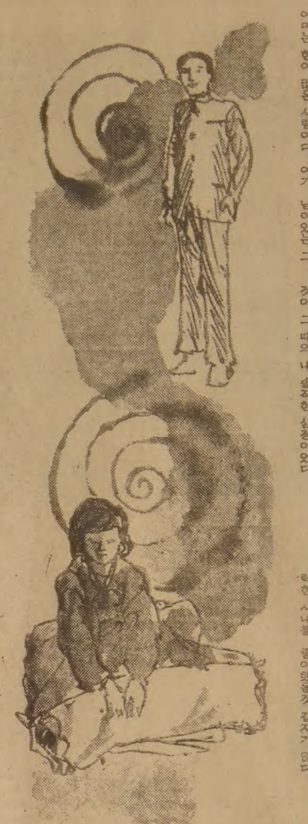
具常 黃東奎

當選所感

첫눈내린날 돼지잡던 꿈꾸고

〈朴守燦씨약력〉
▲56년=서울 출생
▲74년=城南高 졸업
▲현재=關東大學 국어교육과 2년재학중
「現代」同人

〈7面에서 계속〉



어머니는 한덩이의 불꽃이 되어 활활 타고 있었다

金東燁감독 契約金 2千萬원

해태타이거스 趙昌秀·柳南鎬코치와도 계약
OB베어스 코칭·스탭3명·選手24명계약
프로野球 6개팀서 創團 작업 활발

프로야구 6개팀의 창단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태·타이거스는 5일 永登浦 해태제과 본사에서 金東燁감독과 趙昌秀·柳南鎬코치의 계약조인식을 가졌으며 쌍山·OB베어스도 4일 코칭·스태프 3명과 선수24명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태는 1월중순께 서울과 본거지인 光州에서 창단식을 가질계획이며, 쌍山은 11일 동계체력강훈을 개시하고 15일 合同회관에서 창단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三美슈퍼·스타즈도 15일까지 선수계약을 매듭짓고 20일께 창단식을 가질예정이다. 三美는 16일부터 仁川공설운동장에서, 2월1일부터 鎭海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해태의 초대코칭·스태프로선임된 金東燁감독과 趙昌秀·柳南鎬코치는 모두 실업팀 롯데의 창단 멤버. 특히 金감독은 롯데를 실업최강으로 이끌며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는 애칭을 얻었는데 이날 계약조인식후에는 『해태의 목표는 우승이고 나의 목표는 롯데에 이기는것』이라고 프로팀감독다운 포부를 밝혔다.

선의의 라이벌을 만들어야 서로의 발전과 팬들의 관심을 얻을수있다는게 그의 견해.

金東燁씨는 建國大, 漢陽大에 이어서 6번째로 맡은 해태·타이거스의 팀·컬러를 『범같은 팀』이 될것이라고 소개.

◆…계약서에 따른 金東燁감독의 계약금은 2천만원, 연봉은 1천2백만원, 趙昌秀·柳南鎬코치의 계약금은 1천만원, 연봉은 9백60만원씩.

그러나 해태측은 이밖에도 코칭·스태프들이 일하는데 충분한 활동비와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金감독은 『6개구단중 가장좋은 대우를 받게됐다. 계약내용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쌍山·OB베어스는 4일 투수 朴哲淳·宋容成 2명을 제외한 전선수에 대한 입단계약을 끝냈다.

창단6개팀중 가장빠른 템포로달리는 OB베어스는 이날 계약금만 모두 7억3천여만원에 이르렀다.

朴哲淳은 특급대우로 합의됐으나 宋容成의 대우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않았다.

◆…쌍山·OB베어스는 3개의 비디오 촬영팀을 삼성, 선수들의 연습·훈련·경기과정을 모두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훈련용으로 사용하는한편 메리트·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키로 했다.

또한 OB베어스는 선수들의 개인성적을 철저하게 체크, 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연봉과 계약금책정에 자료로 삼을 계획.

◆…日本프로야구 커미셔너 시모다(下田)씨가 3월 하순께 서울을 방문, 徐鐘喆 한국프로야구위원회(KPBC)총재와 韓·日커미셔너 회의를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모다씨는 徐총재를 만나 韓國系선수의 스카우트등 韓·日간의 프로야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日本프로야구에는 韓國적을 가진 선수가 40여명이나 있으며 고교에도 20여명이 주전급으로 활약하고 있어 日本프로야구에선 韓國프로야구와 선수이적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해태·타이거스 심벌·마크
해태·타이거스의 심벌·마크 「성난 호랑이」. 팀의 기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있다.

國體 冬季氷上대회

27일부터 氷速·피겨·氷球등 3종목

제63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泰陵국제스케이트장과 東大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동계체전서는 스피드, 피겨, 아이스하키등 3종목의 경기를 치른다.

◇동계빙상대회종목

◆스피드스케이팅
▲남자=국민학교(500m·1,000m·1,500m·3,000m) 중학교(500m·1,000m·1,500m·3,000m·5,000m) 고교·대학일반(500m·1,500m·5,000m·10,000m)
▲여자=국민학교(500m·1,000m·1,500m) 중·고·대·일반(500m·1,000m·1,500m·3,000m)

◆피겨스케이팅
▲남녀=국민학교·중학교·고교·대학·일반A조(7~8급) B조(5~6급) C조(3~4급) D조(초급~2급) 아이스댄싱, 페어스케이팅, 그룹스케이팅

◆아이스하키=중·고·대학·일반

男子배구代表 和·벨기에選拔꺾고 和국제大會 우승

【브레멘(西獨)=金仁奎특파원】 네덜란드 라보 디나모국제배구대회에서 우승한 한국남자대표팀은 4일 벨기에서 열린 국제배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팀은 네덜란드 챔피언팀인 시탄란드를 3-1로, 벨기에 대표팀을 3-2로, 벨기에 클럽 우승팀인 흐만을 3-1로 각각 물리치고 우승했다.

한편 한국팀은 프랑스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도 張允昌 姜斗泰의 활약으로 3-1로 쾌승했다.

10年만에 名譽은퇴

朴大熙 西獨여자排球대표팀 監督

◇朴大熙 감독

【브레멘=金仁奎특파원】 지난71년3월부터 西獨여자배구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해온 한국의 배구지도자 朴大熙씨(46)가 자신이 천거한 폴란드인 안지넌지코치에게 대표팀감독직을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西獨배구협회는 82년1월3일 브레멘시민체육관서 열린 국제여자배구협회 최종일 한국-西獨경기직전 朴씨를 위해 은퇴식을 베풀었다. 이자리에서 마더西獨배구협회장은 『무명의 西獨배구를 일약 유럽강호로 끌어올린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특히 西獨의 배구인구가 10년전 3만명에서 현재 33만명으로 늘어난것은 朴감독의 공로』라고 치하, 6천여관중들로부터 우뢰와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은퇴식에는 西獨의 옛 대표선수 10여명이 참석, 朴감독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으며 朴公天총영사, 李在一한…

朴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을 지도하는 틈틈이 순회코치로 활동해왔는데 최근 좀더 자유스럽고 가정적인 생활을 원해왔다는것.

朴감독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3·4월께 귀국해서 한국을 비롯한 東洋배구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西獨에 보급시키고싶다. 西獨에 배구전문학교를 설립하는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가엾은 범스테드…모두 청구서뿐이로군" "우편물이요" "지금 뭘하고 있는거요?" "소중한 봉급수표가 당신손에서 떠날것을 생각하고 잠시 묵도를 하고있는겁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

朴婉緒 作 金光培 畫

한 옛날에 ②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새 總理에 劉彰順씨

經濟각료주축 電擊改閣단행

◇金埈成부총리 ◇羅雄培재무장관 ◇李宣基동자부장관 ◇金宗鎬건설부장관 ◇孫在植통일원장관 ◇李範錫비서실장

◇新·舊 국무총리의 交驩
新·舊총리의 다정한 惜別의 交歡。 4일상오 중앙청 중앙홀에서 새해 始務式과 離·就任을 함께마친 劉彰順신임국무총리서리(左)와 南悳祐전총리가 다과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발길을 옮기고있다。

副總理에 金埈成씨 任命

財務 羅雄培 動資 李宣基 建設 金宗鎬 統一 孫在植씨

대통령秘書室長엔 李範錫씨

全斗煥 대통령은 4일字로 재국무총리서리에 劉彰順무역협회 회장을 임명하는등 국무총리를 비롯한 5部장관을 更迭하는 改閣을 3일 단행했다。 全대통령은또 4일字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 金埈成 한국은행총재、재무부장관에 羅雄培 民正黨의원(全國區)、동력자원부장관에 李宣基 民正黨총재비서실장、건설부장관에 金宗鎬全南지사、통일원장관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에 孫在植내무부차관을 임명했다고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이 3일하오 발표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짜로 金瓊元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 李範錫통일원장관을 임명했다。

全대통령은 4일상오 청와대에서 신임각료및 대통령비서실장에게 任命狀을 주었다。

신임 劉총리서리는 오는20일 전후로 예정되고있는 임시국회에서 任命동의를 얻을때까지 總理署理로 일하게된다。

경제부처각료를 주요대상으로한 이번 改閣에 대해 李대변인은『全대통령은 새로운 경제팀으로 지난1월1일부터 시작된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전반에 새로운活力素를 불어넣기를 희망하고있다』고 설명하고『退陣한 南悳祐국무총리、申秉鉉부총리및 각료들이 제5공화국출범을 전후해 지금까지 정치·사회안정과 경제의 安定基調를 다지는데 있어 공헌한데 대해 全대통령은 그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李대변인은 또『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安定基調를 해서 경제전반의 安定基調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는 기반위에서 추진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南悳祐경제팀은 지난80년 9월2일 組閣으로 출범한이후 1년4개월만에 退陣했다。

全대통령 前方시찰

全斗煥 대통령은 3일 상·하오에 걸쳐 西部戰線의 陣地공사현장등을 시찰한뒤 장충체육관에 들러 KBS주최 「82년新春스포츠大祭典」의 女高농구경기를 참관했다。

三部要人 賀禮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4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丁來赫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간부, 兪泰興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판사, 劉彰順국무총리서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 李載灐대표위원을 비롯한 民正黨간부, 軍주요지휘관등 1백1명으로부터 새해 賀禮를 받은뒤 리셉션을 베풀고 환담했다。

次官級·知事등 後續人事

기획원차관	鄭寅用
내무차관	李春九
재무차관	姜慶植
문공차관	許文道
科技處차관	金容瀚
治安本部長	安應模
忠南知事	柳興洙
全南知事	金昶植
濟州知事	崔在榮
韓銀총재	河永基
產銀총재	崔昌洛

정부는 改閣에 따른 後續人事로 경제기획원차관에 鄭寅用재무부차관을, 내무부차관에 李春九의원(民正·全國區)、재무부차관에 姜慶植경제기획원차관보、문화공보부차관에 許文道대통령비서실 政務비서관、과학기술처차관에 金容瀚경제기획원 산실장을 5일字로 승진·轉補 또는 新規 임명, 발령했다。 정부는 또 치안본부장에 安應模치안본부 제2부장을、忠南知事에 柳興洙치안본부장을、全南知事에 金昶植 대통령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濟州知事에 崔在榮내무부 민방위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고 부총리로 轉任돼 공석중인 韓銀총재에 河永基產銀총재、產銀총재 후임에 崔昌洛경제기획원차관을 이날짜로 임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李應善과학기술처차관、金恩旲문공부차관、李啓完忠南지사、李圭正濟州지사를 依願免職했다。

◇鄭寅用기획원차관 ◇李春九내무차관 ◇姜慶植재무차관 ◇許文道문공차관 ◇金容瀚과기처차관 ◇安應模치안본부장 ◇柳興洙충남지사 ◇金昶植전남지사 ◇崔在榮제주지사 ◇河永基韓銀총재 ◇崔昌洛產銀총재

"安定정착등 注力"
劉新任총리서리

정부는 4일상오10시 中央廳에서 劉彰順 신임국무총리서리를비롯、전국무위원과 在京3급이상 공무원 8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82년도始務式을 가졌다。 劉총리서리는 이자리에서『정부는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제1차연도인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의 강화、경제안정의 定着、사회개발의 擴充、정신문화의 暢達에 특히 역점을두고 모든시책을 펴나갈계획』이라고 말하고『熱과 誠을 다해 정부의 금년도 시정방침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감으로써 壬戌年 한해가 어느해보다도 보람찬 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尹前대통령宅방문

劉彰順 신임국무총리서리는 4일하오2시 서울安國洞 자택으로 尹潽善前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임인사를 했다。

對共경계强化
내무부 對策회의

내무부는 2일상오 치안본부 회의실에서 치안본부、지방행정、민방위관계관을 소집、통금해제에 따른 전국경찰의 비상근무등 후속보완대책을 시달했다。

徐廷和장관은 특히 북괴의 간첩침투등 통금해제후의 대공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질서를 바로잡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號外세차례發行

新正連休中 通禁철폐는 1일자로、改閣뉴스는 3·4일자로 속보하기위해 號外를 3번 발행했읍니다。

通禁 오늘밤부터 없어진다

오늘閣議의결

接敵·海岸 51郡·2百83邑面제외

釜山·仁川등 市는 모두解除

야간통행금지가 5일밤 12시(6일새벽0시)부터 일부 접적및해안등 취약지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정부의 이같은조치는 지난 1일 全斗煥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것으로 해방이후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통금은 37년만에 없어지게됐다。

全대통령은 지난1일 상오 관계관들에게『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통금해제 문제를 상정하여 당일부터 해제하도록 모든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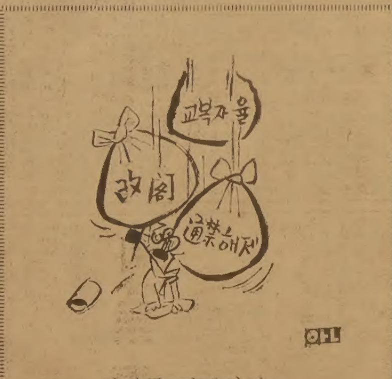
이에따라 정부는 5일하오 새해 첫정례국무회의에서 통금해제를 의결한뒤 이날밤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내무부는 야간통금해제에서 휴전선일대의 접적지역인 경기·강원 9개郡 62개邑面과 해안선을 낀 후방 42개郡 2백21개邑面등 모두 51개郡 2백83개邑面(경기 津郡 포함、52郡 9백92邑面)을 제외했다。

이와함께 전국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이내의 해상도 통금해제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접적지역중 鐵原~東草사이 국도와 해안선을 낀 邑面사이 지방도로에는 통금시간후 차량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강원은 鐵原·楊口·高城·麟蹄郡 전체가、麟蹄郡은 3개邑面이 계속 통금에 묶이게 되며 후방해안지역은 경기 4개郡 17개面、강원 3개郡 13개邑面、충남6개郡 44개邑面、전북5개郡 32개邑面、전남12개郡 62개邑面、경북 4개郡 21개邑面、경남8개郡 32개邑面에 계속통금이 풀리지 않는다。

社會漫評



아이구 깜짝이야…

中高生 교복·頭髮 자율화

推進방안 校長에 일임

머리모양 금년부터 校服 83년新入生에

문교부는 4일 全斗煥 대통령의 지시에따라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학생의 교복은 83학년도 신입생부터、머리모양은 금년부터 자율화하기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교복과 머리모양은 일제하인 지난 1920년대 이래 70여년만에 자율화됐다。

문교부가 이날 각시·도교육위에 시달한 구체적인 내용을보면 ▲교복과 머리모양은 자율화하되 추진방안은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교모는 착용하지 않도록하되 남자고등학교의 교련시간에는 교련복과 아울러 교모를 쓰도록하며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학교별교복을 입을수 있도록하고 ▲체육복、실습복등은 학교실정에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했다。

문교부는 또 머리모양도 자유롭게하되 ▲퍼머나 염색을 해서는 안되며 ▲남학생의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는 장발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신발역시 ▲하이힐·부츠및 사치성구두(에나멜화·락카화등)는 엄격히 규제한다고 그기준을 정했다。

문교부 黃哲秀장학실장은 이날 교복·두발자율화에 대해『이번 결정은 학생들의개성을 신장시키고 심미안을길러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우리학교교육의 최대의 문제점인 교육의 획일주의를 깨는 중대한 전기』라고 그의의를 설명했다。

地平線

결혼식이라면 새색시와 새신랑이 팔짱을 끼고 서야겠지만、중역회의나 간부회의라면 굳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다。 오는 3월 워싱턴과 뉴욕사이에는 텔리비전회의서비스가 시작되기때문이다。 미국내 장거리통신업계의 96%를 쥐고있는 미국전화신공사(ATT)가「사진·전화회의 서비스」란 이름으로 올해안에 16개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장사다。 ▼워싱턴과 뉴욕에있는 ATT회의실에서 텔리비전회의를 갖자면 한시간에 1천3백40달러(93만8천원)가 든다。 ATT는 신청자의 방으로 출장서비스도 해주고、따로 회사들이 전용중계시설을 갖출수도 있다。 비슷한 것으로 텔리비전전화가 곧 상업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난 연말에도 있었다。 15년전 맥루언이 말한것처럼 지구가 한마을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텔리비전회의 서비스는 내년안에 42개도시로 확대될 계획이다。 멀지않아 세계의 주요도시들도 연결될 것이다。 그것은 국경이 무색해지는 통신위성기술의 보급이 몰고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뜻한다。 세계지도위에서 국경을 지워버리는 것과도 같은 이런 현명은 유럽이나 미국과같은 선진국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다。 소위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개발도상국 브라질은 10억달러(7천억원)를 들여 83년까지 4개의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위에 올려놓을 작정이다。 약1천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해서 설계·제작·발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국산화할 작정이다。 중공과 인도가 이미 70년대에 군사용 인공위성을 쏴 올렸고、브라질은 88년에 첫 국산위성을 쏴 올릴 작정으로 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가릴것 없이「울타리」가 퇴색해가고 있는 기술혁명의 시대이긴 하지만、땅위에서는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폭력의 대결이 끊이지 않고있다。 폴란드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이 가장큰 대결의 현장이다。 이 한반도는 아직도 팽팽한 냉전체제의 최전선이 가로지르고 있다。「우리」와「남들」을 구별하는 원시적심리는 지금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자 헉슬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엄청난「다양성」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주공간을 바라보는 철학자와 땅을파는 농군의 사이는 얼마나 먼것이냐고 그는 말하고있다。 이 엄청난 기술혁명의 시대가 요구하는것도 마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관용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새해 메시지에서 말한 평화와번영도「지구인」의 새로운 정신혁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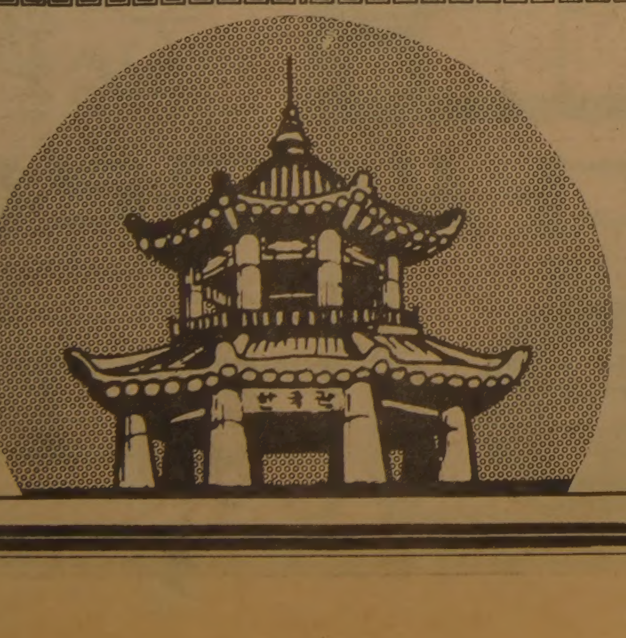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음식점의 대명사

근하신년



한국관

연중 무휴
* 최저가격으로 최고의 음식을 맛 보십시요.
* 단체손님 환영(회의실 마련)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옥녀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經濟정책 活力化예상

새經濟팀 運用방향

住宅경기 浮揚策 곧마련

30年인플레 올핸 기필코종식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새로운 팀장으로 財務, 建設, 動資등 4개 경제부처장관이 交替된 새로운 경제팀의 등장은 지금까지 견지되어온 安定化정책의 기조에 變化를 가져올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정책수단이나 정책시기의 선택에는 상당한 유연성이 기대되며 또 지금까지 보다는 경제를 活力化하는쪽으로 정책방향이 강구될것으로 보인다. 신임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앞으로의 경제정책도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하는 지금까지의 안정화정책기조를 계속 밀고나가겠으나 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등 총량목표에 집착한 종래의 巨視的 접근못지않게 개별기업과 개별가계의 실정을 배려하는 微視的 정책접근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경제의시련을 극복하기위해 모든 경제정책은 국민적合意와 一體感을바탕으로 출발할것이며 물가를 10%선에서 안정시키면서 7%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일은 쉬운일이아니며 국민의 고통분담 역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30년동안 지속되어온 인플레를 올해는 기필코 단절시켜 고도성장일변도로 왜곡된 우리경제체질을과감히 바꿔나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의 새로운經濟팀은 주택경기活性化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 곧 관계부처와 협의, 국민주택을 중심으로한 주택부양책이 마련될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羅雄培재무부장관은 국민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물가안정국제수지방어등 정책기조가 변동될수는 없다고 밝히고 국제수지방어도 당초 5차5개년개발계획보다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羅장관은 경기에 활력을불어넣기위한 정책은 쓰겠지만 어디까지나 물가안정이나 국제수지방어등 한계 안에서 생각해야되며 특히 투기를통한 주택경기부양이나 안이한 통화신용정책등 손쉽게 생각되는 단기적 부양책은 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金宗鎬건설부장관은 이날 국민주택을중심으로한 주택경기부양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날 취임소감을 밝히면서 철강등 건축자재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할뿐아니라 집을지어도 60%정도밖에 팔리지 않는등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범위내서 대책을 세우도록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해 값싼 국민주택을 대량 공급토록할것이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국각도시의 도시계획재정비계획도무리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現場經濟에 期待건다

經濟界改閣반응 官民협조 제2도약다짐

경제계는 이번 개각에대해 업계를 이해할 인사들이 입각했다는데서 환영일색。

大韓商議는 5차계획의첫해로서 물가안정, 7%경제성장, 2백50억달러수출등 올해의 목표를 달성키위해서는 官民협조체제가 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 지적, 업계를 아는 인사들이 입각한데 큰 환영을 표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업계의 책무를 다할것을 다짐했다。全經聯도 이번 개각이 全斗煥 대통령의 제2경제도약을 위한 의지와 신념의 표현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새경제팀이 경제계와 국민을 융화단결시켜줄것을 기대했다。

經營者總協은 이번 개각이 경기회복과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키위한 정책의지의 반영이란점에 의미가있다면서 현장경제를 직접다루던 경제인들의入閣으로 현장감있는 경제시책이 마련될것으로 기대했다。

貿易協會는 안정기반에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데 이번 개각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이론과 현실에 밝은 경제각료들의 새로운 스타일의 경제정책을 기대했다.

外換업무 簡素化 / 期間등 대폭短縮

한국은행은 4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제출서류간소화, 처리기간단축, 처리절차간소화등을 골자로 외국환관리규정, 관계협정을 대폭적으로개정, 이날부터 시행토록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지사설치비등 97개인허가업무의처리기간이 3일에서 2일로단축되고 현지금수입등 56개인허가업무의 제출서류가 대폭간소화됐으며 현지금융등 12개 사후관리업무의절차가 간소화됐다.

次官·知事약력

◇鄭寅用경제기획원차관=▲서울출신·48세▲서울法大卒▲駐美·駐英재무관▲재무부外換국제금융국장▲재무부국제금융차관보▲재무부차관

◇李春九내무차관=▲忠北淸原출신·48세▲陸士14期卒▲국방대학원卒▲師團포병사령관▲國保委사회정화분과위원장▲육군준장예편▲國會의원(民正·全國區)

◇姜慶植재무차관=▲慶北榮州출신·46세▲서울法大·美시라큐즈대학원▲경제기획원예산총괄국장▲경제기획원예산국장▲물가정책국장▲경제기획원예산총괄차관보

◇許文道문공부차관=▲慶南固城출신·42세▲서울大·東京大대학원(사회학)▲朝日신문외신부차장▲駐日대사관수석공보관▲중앙정보부비서실장▲대통령비서실공보비서관▲정무비서관

◇金容瀚과기처차관=▲全北南原출신·53세▲서울商大卒▲경제기획원예산總括·투자1과장▲〃예산심의관·물가정책국장▲〃예산국장▲〃예산실장

◇安應模치안본부장=▲서울출신·52세▲檀國大卒▲치안본부기획감사과장▲忠南道警국장▲海洋경찰대장▲치안본부제2부장

◇柳興洙忠南지사=▲慶南陜川·45세▲서울法大·國防대학원卒▲釜山시경국장▲치안본부제1·3부장▲서울市警국장▲치안본부장

◇李相植全南지사=▲全南康津출신·53▲國民大·서울大행정대학원卒▲총무처총무국장▲총리실행정관리국장▲소청심사위원장▲총무처차관▲대통령비서실정무제2수석비서관

◇崔在榮濟州지사=▲忠南大田출신·54세▲陸士卒▲東亞大2年修了▲陸本병참감실장▲忠南道보사국장▲忠南道기획관리실장▲大田시장▲내무부민방위본부장

◇河永基韓銀총재=▲慶南馬山출신·57세▲京城帝大·서울大政治科卒▲韓銀조사부차장▲韓銀理事▲韓銀부총재▲第一은행장▲產銀총재

◇崔昌洛產銀총재=▲京畿龍仁출신·51세▲서울文理大卒·美반더빌트大대학원卒▲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차관보▲총리행정조정실장▲상공부차관▲경제기획원차관

物價 7~8%서 安定

全經聯 賃金은 實質소득증대 力點

鄭周永회장을 비롯한 全經聯회장단은 4일 올해물가를 정부가 제시한 억제선 10~13%선을 훨씬 밑도는 7~8%선에서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 노사협력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들의실질소득이 증대되도록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全經聯회장단(사진)은 이날 서울世宗文化회관에서 새해기자회견을 통해이같이 밝히고 과거2년동안 불황속에서 기업들이 군살빼기를 해오는등 경영합리화를통해 재도약준비를 갖추고있을뿐더러 美國등 선진국경기가 차차 나아질전망에 있는만큼 금년에는 해외경기는 회복단계에 접어들어 7%성장은 가능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도 輸出 2백9억弗

4일현재集計

상공부는 4일 지난81년중 수출실적 (FOB기준)은 2백9억8천1백82만달러로 80년실적보다 19·9%가 늘어났고 수입실적 (CIF기준)은 2백62억9천9백만달러로 17·9%가 늘어났다고집계했다。이에따라 무역수지적자는 53억1천7백61만달러로 집계되었다。

한편 지난12월중 수출실적은 18억2천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4·9%가 늘어났으며 수입은 23억6천1백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불과 1·7%가 늘어났을뿐이다.

證市 騰勢로 출발

發會式

4일 發會式을갖고 문을연 證市는 개장등 새해벽두의 잇달은 호재로 초강세로 출발했다.

이날 배당락주가는 1백64·6으로 지난해 배당률 (80년결산분)을 감안하여 산출한 이론배당락주가 1백56·5보다 8·1포인트가 높게 형성돼 올해 證市전망을 밝게해주었다.

證市관계자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작년말 3차례에 걸친 金利인하등의 호재를 감안할때 올해 證市는 지난해보다 활기를 띠어 2·4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내다봤다.

本社來訪

▲李承潤씨 (전 財務部長官) 退任▲李景勲씨 (株式會社大宇)▲周東植씨 (大宇實業株式會社副社長) 人事次

旅大港 7艦隊기항지로

美、中共과 寄港權 협상

日紙보도 對蘇통신基地설치이어 극비로

【東京3日=宋孝彬특파원】미국은 중공의 新疆위구르 자치구내에 소련을 대상으로한통신정찰기지를 설치한데 이어 遼東반도의 旅大(旅大連)를 제7함대의 기항지로 삼기위한 교섭을 중공당국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신문은 미국이 핵실험을 포함한 소련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통신정찰기지를 작년여름 중공 서부 新疆省의 로프·노르근처에 설치, 이미 가동시켰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정보가 일본정부와 방위청에 의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정부소식통의 미확인 정보들을 인용、미국과 중공이 현재 北京에 가까운 旅大港을 식료품과식수의 공급을위한 미7함대의 기항지로 삼는 문제를 협의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는 이 정보가 제3국을 경유하여 입수됐다고밝혔다。

일본정부는 특히 7함대의 旅大기항추진이 극동에 전역핵을 배치하려는 미국정부방침과 관련된것으로 보고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요미우리는 미국이 新疆省에설치한 통신정찰기지가 지난79년 이란의 회교혁명과 더불어 폐쇄된바 있는 이란북부의 미통신정찰기지의 기능을 이어받은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정부소식통들이 비공식적인중공경로를 통해 美군사정찰기지가 중공내에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외무성소식통들은 일본외무성이 이정보내용들의 진실성을 묻는 공식질의를 중공당국자들에게 제시했으나 중공당국자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았다고밝혔다。

정부소식통들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중공과 일본을포함한 극동지역에 전역핵무기들을 배치하는 문제가 관련돼있음을 지적하면서 미7함대의 旅大기항교섭이 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중공내에 美통신기지가 설치돼있다는 사실은 당초 작년6월 뉴욕·타임즈지와 NBC방송등 미국언론기관들에 의해 보도됐었으나 그때 중공당국자들은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었다。

가나에 軍事쿠데타

退役空軍대위主導 議會해산·軍部전권장악

【아비장(코트디브와르)3日AP·外信綜合=聯合】아프리카서부 기니아灣에 위치한 가나에서 지난31일하오 제리·롤링즈 퇴역공군대위 (34·사진) 가 주도한 군사쿠데타가 발생, 힐라·리만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전복되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으며 쿠데타발생 72시간후인 3일 현재 수도 아크라는 쿠데타 주도세력에 의해 평온을 되찾고 있다고 아비장에서 청취된 가나방송이 보도했다。

가나 방송은 새로 정권을 장악한 롤링즈 전대위는 국가방위평의회 (NDC)를구성, 전국에 통행금지를 선포하는한편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단시켰으며 6개의합헌 정당들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對波 制裁난색

슈미트首相

【뉴욕3日UPI=聯合】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은 3일 발행된 뉴욕·타임즈지와의 회견에서 폴란드에 대한 제재에 난색을 표명했다。

슈미트수상은 폴란드사태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폴란드로부터 흘러나오는 뉴스를 우려하고있으나 우리스스로 폴란드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는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측이 당면한『중대한 문제』는 『바르샤바와 모스크바에 신호를 보내는것이상으로 무엇을 할수있으며 또한 해야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外信안테나

▲마르코스사위 몸값要求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의 사위로알려진 스포츠맨을 납치한 범인들은 2일 2백50만달러의 몸값과 함께 체포된 공산당원들과 신민군의 장교4명석방을 교환조건으로 제시했다。

마르코스대통령의 딸 아이·미양과 지난12월 美버지니아州 알링턴에서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토미·마노토크씨(32)는 구랍16일 귀국했다가 29일 실종됐다。

그러나 마노토크씨 가족들은 이번 결혼을 반대한 마르코스대통령이 마노토크씨의 실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마닐라=UPI聯合】

◇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의 사위 토미·마노토크와 딸 아이미。

얼굴

劉彰順총리

작년 6월 무역협회회장직을맡은지 6개월만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劉彰順씨는官界 금융계 財界를고루거친 순수한 경제인。平南安州출신으로 平壤공립상업을 나와 (37년) 곧바로 朝鮮銀行에 들어가 해방후

대쪽性格 맡은일은 철저히

韓銀東京지점장과 뉴욕사무소장을 거쳐 復興部차관 韓銀총재를 역임했다。5·16때상공장관7개월에 이어 기획원장으로 발탁된지 2개월만에 軍政연장에 반대하여 官界를 떠난뒤 14년간 롯데그룹사장으로 일했다。대쪽같이 꼬장꼬장한 성격에 점잖고 깔끔한면도있는 劉총리는 어떠한직책을 맡더라도 자신의영위와 정성을 다바쳐 일하는 인물이라는게 주위의評。75년 왼쪽肺를 절제한뒤 술과 담배를 끊고 아침6시에 일어나 심호흡과 맨손체조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이 (64) 가 의심스러울정도로 젊어 보이는 老益壯을 자랑하고있다。園藝와 골프가취미인 그는 부인 李愛子여사 (46) 와의 사이에 5男1女를두고있다。

金埈成부총리

후리후리한 키에 은발이 희끗희끗 하다。원숙한 경륜을 느끼게하는 첫 인상이다。당년 62세—。인생을 달관하고 지혜가 영글었을만한 연륜이다。現代文學추천작가로 문단에 데뷔한후

기억력뛰어나 大勢판단정확

20년、기업가로 금융인으로 바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몇년전 까지만해도 韓國文學 (77년8월호) 에 단편「飛翔」을 발표하는 등 文筆을 놓지않았다。嶺南일보 KBS 논설위원을 지냈는가하면 양말공장 사장도 지내고 大邱商議부회장도 지냈다。大邱銀行長 第一銀行長 外換銀行長 產銀總裁 韓銀總裁를 거치면서 학식과 경륜、경험과 이론이 농축되면서 영글어졌다。대세판단이 정확하고 맥을 잘 짚으며 판단이 빠른것으로 정평이나있다。특히 비상한 기억력은 주위사람들이 혀를 내두를정도。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독서광이다。부인 李成鎬여사 (60) 와 3男 2女。

羅雄培재무

「국민경제의 기본은 결국 사람이고 그런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기업가 근로자 농민 관료에 이르기까지 발전할수있는 바탕이되

理論과 實物에밝은 円滿型

어있읍니다。따라서 국민이 경제발전에대한 확신을 갖고 참여할수있는 분위기만 조성해준다면 잘되리라 믿습니다』 서울商大출신으로 韓銀조사부직원 대학教授 경영학博士 기업체社長에 이어 현직國會議員으로 경제이론에서부터 경영실무 정치감각까지를 골고루 마스터했다。깔끔하고 세련된 몸가짐에 능란한 화술도 겸비한 羅장관은 전문경영인 경력답게 대화와 신뢰속의 상호인식을 중시하고있다。忠南大田產으로 부인 朴準均여사와 사이에 2男。

李宣基동자

民正黨총재 비서실장으로 부임한지 13일만에 入閣한 李宣基신임 동자부장관은 전형적인 경제관료。官界에 들어온지 만23년

폭넓은說得力 어디든好評

만에 長官자리에 오른 立志的인 人物。어느자리를 맡아도 부드러운 對人관계、폭넓은 설득력、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好感을사면서 일을해내고있다는 것이 定評。英語와 日語에 능통한그는 79년경제기획원 차관으로 발탁되기까지 주로 對外經協관계를 맡았고 中東進出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었다。大邱대학장을 지낸 故李恩相씨의 次男。서울 音大출신인 부인 李英子여사와의 사이에 딸만 셋。취미는 골프와 테니스。

金宗鎬건설

취임소감을 밝히면서『주택경기를 부양시켜야겠다』고 자신있게 말할정도로매사에 적극적이며 소탈하고 인정이 많은 성격。光州사태직후 全南지사

性格소탈하고 매사적극적

로 기용되어 당시 심각하기 짝이없던 상황을 잘수습해냈고 곧이어 활발한개발사업을 추진、1년반만에 道내안정과 활기를 되찾게한 공로를 인정받아건설부장관으로 다시 발탁되었다는 후문。釜山商高를 거쳐 서울商大에 진학했다 중퇴、陸士를 졸업 (8期) 했다。사단장、국방부군수차관보등을 지냈고 74년 육군소장으로 예편、亞細亞자동차(株) 부사장、錦湖產業사장등을 역임해 경제계에도 知面이 넓다。全南光陽출신。56살。부인 田玉姬여사와 2남1녀가 있다。

孫在植통일

20여년간을 내무부에서만 일해온 典型的인 행정관료。「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내무부局長시절 항상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도

公私분명 도시락局長 별명

시락局長」이란 別名을 얻기까지했다。21년전인 61년 내무부기획조정관실 행정주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매일아침 7시55분에 출근할 정도로 근면하고 기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忠南부지사 내무부지방국장 京畿지사 釜山시장 내무차관을 거칠때까지 줄곧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결벽성을 버리지 않고있다。公私가 분명한 독실한가톨릭신자로 술 담배는 입에대지 않는다。부인 田惠壽여사 (46) 와의 사이에 2男1女。

李範錫비서실장

헌칠한 키에 유창한 영어、능란한 話術、세련된 매너를 지닌 직업외교관출신으로 50年代부터 赤十字社활동에참여、71년南北

部下고충잘아는 協商名手

대화가절정에이르렀을때우리측수석대표로활약했다。駐印度대사때는 越南에억류됐던 우리외교관의 구출을 위해 막후교섭을벌이는등 능숙한 협상솜씨를발휘하기도。서글서글하면서도 직선적인 성격이 好感을 주고있으며 부하들의고충을 발벗고나서서 해결해주려는 보스기질도 있다。80년9월 統一院장관으로 기용된후부터는 취미인 승마를 즐길시간이없어 원예와 가축사육으로 대신하고있다는 그는 부인 李貞淑여사 (53) 와의 사이에 1男4女。

國際무대에 더알려진 金融家

鄭寅用 기획원차관

매사를 성실과、끈기로처리하는 實務家로 國際金融通。온화한 성품에 상냥이몸에 배어있다。외교관은아니지만 국내보다 국제무대에서 더잘알려져 그의이니셜(I·Y·CHUNG)은 국제금융가의 주요인사치고 모르는 사람이없다。서울法大를 졸업하고財務部外換課사무관으로출발해서 18년간 外換업무를 다루다 80년9월 재무차관으로승진했었다。부인 金豐悅여사(43)와의 사이에 1남3녀。

25年만에 非豫算부처로 옮겨

金容瀚 科技處次官

豫算行政에 뜻을 두고 豫算行政부문에서 대성했다는 金차관이 科技處次官으로 발탁된것은 약간의 의외성이있으나 평소 그의 성품으로 보아 누구못지않게맡은 일을 해낼수 있을것으로 기대。50년 서울大商大를 졸업후57년 재무부예산국에서 官界에 첫발을 디딘후 예산국이 企劃院으로 籍을 옮기자 그도 籍을 따라 옮겼고 이번승진과 함께 25년만에 非豫算부처로 자리를 다시 옮겼다。

原理원칙 고수·改革의 理論家

李春九 내무차관

사회정화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한 개혁理論家。國保委사회정화분과위원장에이어 民正黨의 전국구의원이 되기전엔 사회정화위원장을 지냈으며 黨內에선「개혁이론의 교수」역할을 해왔다。陸士14기의 예비역준장으로、不正을 보고는 못참는 강직하고 원리원칙에철저하며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소문나있다。테니스등萬能스포츠선수。부인 文春子여사(41)와의 사이에 1男1女를 두고있다。

警察20年의 立志的인 人物

安應模 治安本部長

安치안본부장은 순경으로 시작、29년만에 경찰총수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53년 경찰에투신、그동안 파출소근무、주월대사관근무(68년)、서울中部서장(72년)、서울시경부장(75년)、충남경찰국장(79년)、해경대장(80년)、치안본부제2부장(81년)등 경찰의 주요요직을 두루거쳤다。작은 체구에 공사가 분명한 성격。부인 李桂浩여사(51)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뒀다。

듬직한체구 企劃에 베테랑

姜慶植 재무차관

제4차와 5차 經濟開發계획 기초작업을 도맡아마무리한 기획업무의베테랑。듬직한 체구에 거므스레한 외모처럼 정력적인 실천가이기도 하다。서울法大졸업후 韓銀을 거쳐 美國 시라큐즈대학서 수학했으며 귀국후 行政考試12회 패스、경제기획원에서 豫算總括課長 物價政策局長 經濟企劃次官補등요직을 지냈다。부인 趙三珍여사와 사이에 3男1女。

끈질긴 意志型 精力家로 定評

河永基 韓銀總裁

전형적인 韓銀맨으로 入行34년 韓銀理事로승진한지 12년만에 總裁자리에올랐다。우람한 체구가 상대방을 압도하는 정력적인 인상을 주나 실제로는 끈질긴 意志型。체구에 맞게 무엇이던 많이 먹는 大食家。서울文理大치과를 졸업。48년에 入行후 56년韓銀의 심장부서인 조사과장 대리에서부터 평균2년마다승진한 기록보유자。부인 金基善여사 사이에 1남2녀。

理論·실천력 뛰어난 行動家

許文道 문공차관

이념적이고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의지가 남달리 월등하다는 평을 받고있으며 어려운 주변을 자기일처럼 돌보기때문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있다。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는 駐日특파원시절 朝總聯의 내막을 폭로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中情비서실장으로 귀국하기전에는 駐日公報官을 역임했다。서울農大에 首席합격했으며 東京大에서 박사과정(사회학)을 수료했다。취미는 독서와 여행。부인 李水卿여사(30) 사이에 2男1女。

대담한일처리 正統經濟관료

崔昌洛 產銀總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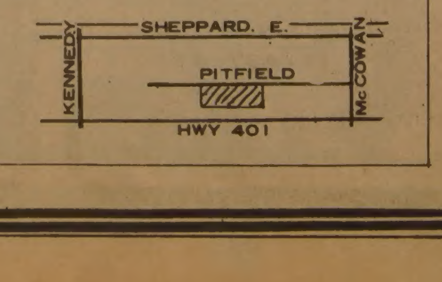
판에박힌 그의 週末스케줄은 거의예외없이 고향龍仁에있는 老母를 뵈러가는일。5척단구에 가냘픈몸매지만 성품이 대쪽같고일처리가 담대하다。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 駐日·駐佛公使、총리실 行調室長、商工·기획원次官등을거친 정통경제관료。한국파인데다 문학 음악 미술역사골동품등 취미도 다양하다。서울文理大政治科와 美벤더빌트대학원을 나왔다。

대형SALE!

싸구려! 어디보다 싸구려!

서울식품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새해 벽두에 울린「自由의 出發信號」

通禁해제와 中·高生머리型자율화에 붙여

「새社會생활」슬기롭게 享有하자

우리는 새해 벽두에 두가지의 밝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즉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通禁解除가 1월5일밤부터 실시된다는 것과 신학기부터 中高生의 머리型을, 내년부터는 복장을 자유화한다는것이다。

야간통행금지와 중고생의 획일적인 교복착용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실질적인 자유의 향유가 아니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었다고 할수있다。

해방후 미군이 진주하여 치안을 유지하기위해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한 이래 그것은 상황의 변화와는 아랑곳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주었다。

한편 중고생의 획일적인 교복착용은 순전한 일제시대의교육풍습의 유물을 아무런 반성없이 받아오고 있었던 것 가운데의 하나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상 가장 자유스러워야할 통행의자유와 청소년의 복장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여간 逆說的인 일이 아니다。

예부터 일러내려오기를 인간은 자유의 主體라고 한다。모든 창조의 바탕이 되고 문화발전의 뿌리가 되는데 있어서 자유처럼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자유가 가만히 앉아서 굴러오는 것은 아니다。

참다운 자유는 자각된 인간의 자율적인 행동과 사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해방후 우리의 문화는 크게 변모하고 많은 발전을하였다。

식민지 백성의 억압된 사슬에서 풀려나 민족의 긍지를 되찾기위해 문화의 각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은 엄청난 것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변모와 발전의 힘이 되어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제의 속박대신 독립국민으로서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야간통금과 중고생의 획일적인 복장이 말해주듯이 한구석에 속박이있었던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자유의 제한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답답함과 갑갑한 느낌을언제나갖게했던것들이다。

세상에 완전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그러나 질서가 있는 가운데의 모든 자유는 한껏누려야 할것이고 또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이라고도 할수 있다。

지난 1941년1월 2차대전당시의 미국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루스벨트는 年頭敎書에서 네가지의 자유를 호소하여 연합국의 자유가 무엇이라는것을 분명히 한일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이고 둘째로 모든 개인에 대한 신앙의 자유, 세째로 缺乏으로부터의 자유와 네째로 공포로 부터의 자유였다。

이 루스벨트의 말은 연합국의 자유주의사상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뜨거운 공감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난 날의 역사적인 사실을 되새기게 되는 것은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다운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이 질서있게 실천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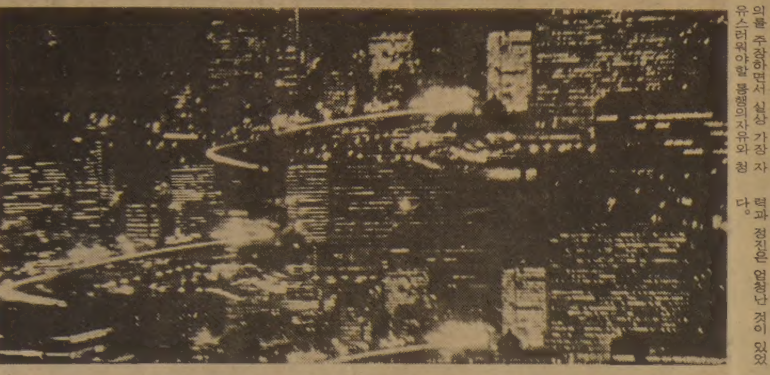
자유를 누구나 입에 올리면서도 그 참다운 면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내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통금해제와 중고생 복장자유화는 새삼스럽게 자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두가지의 解禁事項을 앞으로의 자유스러운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한 하나의 출발신호로 여기고 싶다。

참다운 民族문화를 꽃피우고 우리의역사를 빛나는자리에 올려놓기위해서는 자유는 가장큰 힘이고 또 그것을 지키고 키워나가는것이야말로 우리의 至上課題일 것이다。

새해의 새소식이 밝은 두가지의 화제로 시작되었다는것은 무엇보다도 희망과용기를 갖게 해주는 일이 아닐수 없다。

〈문화평론가〉



「劃一化의 틀」벗어나 이제 文化풍토에도 多樣化시대 開花를…

◇申東漢씨

밤空間 확대로 舞臺 넓어진다

通禁해제로 公演장소 多樣해지고

創作활동의 地方확산에도 큰도움

통금해제조치는 다양한 공연활동의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공연계인사들은▲공연시간의조절▲大河劇·아마추어공연물의 활기▲민속놀이의 현장공연▲지방공연의 확산과 작품영역의 확대등이 통금해제조치를 뒤따르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金正鈺교수(中大·연극협회이사장)는『밤공간이 확대되어 대학생중심의 젊은연극인들의 아마추어 공연이 활기를 띠게 될것이다。또한 연극은 현장예술인만큼 외국처럼 해변은 새벽을 무대로 한 공연이나 밤바닷가 공연、도심한가운데의 자정공연등 다양한 연극공연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한다。

許圭씨(국립 극장장)는 공연시간이 신축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한 예로 하오6시、7시、7시30분으로 묶여 있던 저녁공연시간이 늦추어지고 공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학들의 공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李康淑교수(KBS교향악단 음악감독)는『외식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시간개념의 확대가 창작활동과 공연예술의 지방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아니스트李慶淑교수(延大音大)는『차제에 연주회 시간을 8시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7시공연의경우관중이나 연주자들이저녁을굶고연주회장에들어오게된다는것이다。앞으로는 귀가시간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 연주회 감상분위기가 더욱 좋아지게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무용가 陸完順교수(梨大)는『통금 해제 조치가 무용계에 당장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나 연습시간이 늘어 남에 따라 공연예술 수준이나 창작의욕이 높아질 것이다。그러나 과욕이 신체적 마이너스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민속학자 鄭昞浩교수(中大)는『민속놀이의 밤공연이 활기를 띨것이다』고 말한다。『원래우리민속놀이는 명절과달밤에 절대적 연관이 있으며 특히 탈춤이나 무당굿 강강술래등은 모두 한밤중이나 밤을 밝히면서 하는 놀이로 올해는 이같은 민속놀이의 재현이 낮이 아닌 밤에 이루어져 원래의 맛과 흥취를 느낄수 있게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다。

朴容九씨(음악평론가)는『무대예술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는 현장예술인 만큼 이번 통금해제조치는 공연계 발전을 몇십년 앞당기는 효과와함께 한국창작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될 것』이라고 반긴다。

【崔成子기자】

촬영·劇場상연시간 조정

放送 情報기능 強化되고

新人歌手 활동 폭넓어져

通禁해제로 영화·방송·가요등 대중예술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것으로 보인다。

영화계의 경우 촬영작업과 극장의 상영시간에 변화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심야옥외촬영을 할때 지금까지는관할파출소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없이 철야옥외촬영이 가능케됐다。卞張鎬씨(映協이사장)는『한밤중 거리촬영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영상미가 뛰어나고 작품의 성격을 살리는 영화가 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극장의 경우 첫회 상영시작시간을 30분정도늦추어 관객들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 전국극장연합회회장인 郭貞煥씨의 계획。

또 정부홍보용등 특별문화영화가 극영화에 앞서 약20~25분간 상영될 때는 일일상영횟수를 5회에서 4회로 줄였으나 앞으로는 이런한일도 없을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보도프로가 확대되고 정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印豪鉉씨(KBS편성국장)는『통금해제로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는데 발맞추어 TV의 보도기능을 확대하고, 라디오의 심야프로를 정보의 촉매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성격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힌다。

통금해제로 가수들, 특히 신인을 포함한 저급가수들의 활동이 늘어날것으로 예측된다。철야 영업을 하는 나이트클럽을 제외한 대개의 유흥업소들은 지금까지는 하오11시까지 영업을했으나 앞으로 30~60분 연장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쇼무대의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개런티가 높은 유명가수 보다는 값싼 신인가수들을 많이 기용할것이라는게 한 유흥업소 업주의 말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감안, 당분간은 영업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각각 30분늦추는 정도로 만족할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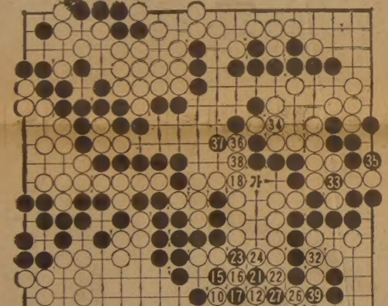
【李亨基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9譜 212~239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徐能旭〈0勝3敗〉

黑(7段) 徐奉洙〈1勝1敗〉



우변 33의곳이 당면한 生死패인데 그 패싸움을 하다보니 이번에는 중앙 白대마가 黑의 맹공을 받고 위기에 처했다。

우변의 패는 黑이 33으로 따낼때 다시 싸워볼 여유가있지만 중앙은 당장 18의곳을 끊기는수가 있다。徐6단은 물론 白5점을 버리더라도「本隊」를 살릴밖에 없어서 白12로 활로를 개척할 요량이었다。

이때 黑13이하15가 여전히 준엄한 공격。끊게 黑18로 끊어잡아도 넉넉한 형세지만 여기까지 온이상 추격의 손길을 멈출수가없다。안할소리지만, 누가두어도 이렇게 계속 다그칠 자리인데 그것을 徐7단이둔 때문인지 더한층 가공할 수단으로 보이니 이상한 일이다。

徐6단은 문자그대로 필사적。白18

黑、勝算있는 協商

만해도「가」자리에 호구치면 제자리 삶에 도움은될것같다。그렇지만 黑38이면 자체가 선수이고 다음白34로 잇는수가 듣지않으니 이롭지않다。

黑19를10자리에잇고 25도16자리에 이어놓고서 차분히 포위부대를진시키려할때 白26이 얄궂었다。26을 27에 이으면 黑26로서 白死。黑도 27로 39면 白27로서 단번에 살아간다。

솔직히 느낌이지만 이근처 피차간 몇십수앞을 내다보는 공방전이라기보다 순간의 감각과 힘으로 맞부딪는가 싶었다。

이윽고 黑31로 우선 하변을 정복한 黑은 33으로 패를따낸다。이른바 전지대패。그러나 白34때 黑35로 패를 간단히 해소해버렸다。비록 白36으로서 黑5점을 제공하더라도 승산이있다는 판단이다。그래서 徐7단은 黑39로 몸조심을 한다。39를 손빼면 白「나」로 고부려 수가날까 꺼려한것이다。【一凡】

나의 이력서

元一漢 ㉙

〈題字·元一漢〉

天池의 水深測定

한여름에도 水面위엔 얼음이

우리가 白頭山을 오른 목적가운데는 天池의 수심을 측정하는 일이 포함돼 있었다。아버지는 이를위해 접을 수 있는 조그만 고무보트를 준비해갔다。

이 고무보트를 호수에 띄우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호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코스가 하나밖에 없었다。

남쪽「火項」이란 균열된 틈바구니외에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가는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이길은 자칫한 돌멩이가 깔려있어 내려갈때는 미끄러지듯 쉬웠다。그러나 오를 때는 기어올랐다가 미끄러지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일행은 3명씩 고무보트로바꿔 타고 가장자리부터 시작, 좀더 깊다고 느껴질만한 복우리 밑을 골라 수심을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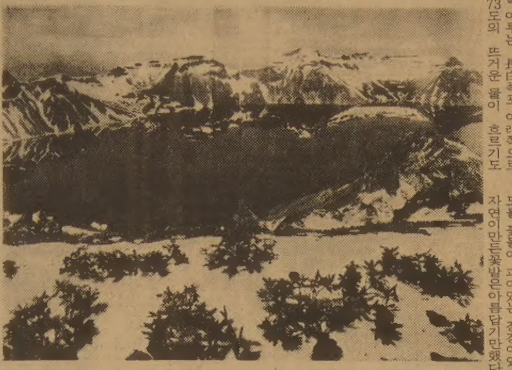
白頭山의 최고봉은 해발 2744m이지만 天池의 수면은 해발 2257m로 천지에서 올려다보이는 주변의 12개준봉은 높이가 5백m가 넘는 셈이다。

天池의 수심을 재기 위해 아버지는 무거운 추를 달아맨 끈을 준비했다。天池의 수심은 우리가 준비한 1천4백70피트의 끈보다 훨씬 깊었다。

1천4백70피트는 4백50m나 되는데도 추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준비한 끈이 짧아 수심이 4백50m이상 5백m쯤 될거라는 추측만 안고 돌아와야 했다。

나는 한참 젊은 혈기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天池에 도착하면 수영을 해보리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서는 그럴 엄두가 나지않았다。수온이 차가울뿐 아니라 호면 한쪽에 얼음이 둥둥 떠있는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주위의 12개 준봉이 호면에 비쳐 한폭의 그림같은 天池。수심이 자그마치 4백50m가 넘었다。

기록에 의하면 한여름의 天池수면온도는 평균 8도가량으로 되어 있으나 天池내벽에 따라서는 기온이 매우 낮아 얼음이 언것으로 보였다。

그런가하면 天池에서 松花江 源水를 이루는 長白폭포 아래쪽으로는 73도의 뜨거운 물이 흐르기도 한다。참으로 변화무쌍한 자연계의 극치를 이룬곳이 白頭山의 정상 天池주변이 아닌가 생각한다。

天池주변에서 또한 인상적인 장면은 약1천평가량의 완만한 경사지가 있고 그곳에 키가작은 이름모를 꽃들이 피어있는 정경이었다。자연이만든꽃밭은아름답기만했다。

고무보트타고 4백50m길이 끈 내렸으나 모자라

지금은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곳이어서 그런지 白頭山 정상에서 뜻아니하게 만난 꽃의 추억이 영영지워지지 않는다。

天池를 水源으로 삼는 江중 만주로 향한 松花江만 직접 天池에서 물이 흘러나가고 압록강은 남쪽 정계비의 서남방에서, 두만강은 동쪽 14㎞떨어진 無頭峰근처에서 각각 물이 흘러 내려간다。

우리일행은 天池의 동북쪽으로흘러내리는 松花江의 출구에도 가보았다。그곳에는 조그마한 암자가하나 있었다。그 절은 멀리서볼때 양색을 띠고있었다。벽에 함석을붙인것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가까이 가보니 자작나무 껍질을 붙여놓았었다。

白頭山 등반기간중 가장 염려한 것은 날씨였다。여름 雨期였으므로 비라도 많이 내렸으면 지장이 컸을 것이다。

다행히 오르고 내리는 도중 한두차례 가벼운 비를 만난외에는 날씨가 내내 쾌청했다。특히 天池의 수심을 재는 시간엔 하늘은 호수와 똑같은 푸른색을 이루었다。지금생각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려올때는 오를때와 약간 다른 코스를 택했다。그코스는 뗏목을타고 압록강을 내려올 수도 있었다。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이 뗏목타기가 허락되지 않았다。빠른 물살로인해 뗏목끼리 부딪쳐 사고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여러해전에 한라산도 등반한 일이 있다。한국인 가운데도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을 둘다 올라간 사람은 그리 많은것 같지가 않다。그런점에서 작은 자랑이 될듯하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295〉

筋膜炎

늑막(肋膜)은 양쪽肺를 싸고있는 두겹의 얇은 막을 말한다。늑막염은 바로 이두겹의 늑막사이에 염증이 생겨 물이 괴거나 염증성유착(붙어버리는것)이 생기는 경우이다。

늑막염의 원인으론 여러가지를들수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제일많은것은 결핵성이다。보통 비외상성늑막염(外傷에의한 늑막염제외)의 반수이상에서 결핵치료를 필요로하고있다。이밖에 페디스토마증때도 양암과같은 무서운병에서도 늑막염이 발생될수있어 의사의입장에서는 치료전에 원인을 가리는 일이 아주중요한일에 속한다。따라서 번거롭긴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하기때문에 원인진단이 아주중요하다。늑막염이있게되면 대부분에서 흉통과숨찬증상이 나타난다。

또 비특이증상으로 미열, 쇠약감, 체중감소, 기침, 가래증의 호흡기증상이 있을수있다。그리고 간혹 가슴을 부딪쳤거나 과로끝에 흉통증상을 보이다가 뚜렷한 늑막염증상으로 발전하기도한다。늑막염은 청진, 타진만으로도 대부분 쉽게 가려낼수있다。하지만 흉부X선사진을 찍어보면 더욱정확한 판단을 할수있다。그러나 문제는 늑막염이

結核性 가장많아… 原因찾아 치료해야

측성으로 늑막에 물이 괴는 수가 많고 폐염이나 폐암에 합병되어 늑막염이 생길 수 있다。

폐염과 폐암이 문제가된늑막염은 일반적으로예후가좋지않다。또심장·간장·신장, 여성의 경우 난소등 장기에 병이 생길때 늑막염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늑막염치료는 우선 원인을 가릴 필요가 있다。

심장질환이나 난소(卵巢) 질환때문에 일과성으로 초래되는 늑막염은 크게 문제가되지 않겠으나 페해도 대부분의 경우 늑막천자(주사바늘로 늑막사이에 생긴 물을 빼냄)와 늑막조직의 조직검사를 필요로하게된다。늑막천자같은 검진을해야한다고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이들검진은 후유증(늑막유착이나 흉곽變形) 없이 원인요법을 정확히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기때문에 환자는 어느정도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한다。더우기 우리나라에 많은 결핵성늑막염인 경우에는 결핵약을 1년이상 먹여야라고하는말이 병명이 아니고 증상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원인을가려근본적인 원인요법을 해야한다고하는것이다。원인요법을하지않고 우물쭈물 시간을끌게되면 치료의시기를 놓친다든지해서 늑막유착증이심해질수있는데 이렇게되면 나은다음에도 가슴이 구부러지는 흉곽변형을 초래할수있다。

金建烈

【醫博·서울大의대내과교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①

바깥날씨는 밝고고요했다。거실의 녹두색양탄자위에 부옇게 이스커튼의 꽃무늬가자체의 명암(明暗)처럼 미동도 안했다。멀리 은빛으로 번들대는 강을 향해 경사가 급한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이었다。

손질이 잘된 마당의 푸른 수목을 배경으로 깜짝 놀라도록 염통한 빛깔로 피어난 퀸·엘리자베드에 머문햇살은 유난히 도탑고 화려했지만 어쩐지 볼록렌즈로 모은 빛처럼 불안해보였다。불안해 보이긴 수목의 푸르름도 마찬가지였다。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렬하고 신경질적으로 햇살을 거역하던 이파리들이 갑자기 폭이 죽고 유순해져서 햇빛에 아양을 떨고있었다。그러나 아무리 그래봤댔자였다。이미 푸르름 사이에 골고루 스민 조락(凋落)의 조짐을 눈가림할수는 없었다。

초가을이었다。

그래서 거실에서 뜨개질하고있는 아내의 모습이 돋보였다。남편은 혼자서 바둑판을 끼고앉아 바둑책을 보고 있었다。심각하고 골똘한 모습으로 봐서 삼사급쯤 돼보였다。두 아이는 과흔을 버석버석 씹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리기도 하면서 그림책을 보고있었다。둘 다 사내아이였다。대여섯살 전후의 형제중 형은 이미 한글을 깨친듯 만화책에 열중하고있는데 동생은 자기그림책엔 처음부터 흥미가 없는듯 휘휘 넘기기만하다가 슬금슬금 형을 귀찮게 굴기시작했다。

자기 그림책을 형이 보는 만화책위에 포개놓으며 읽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만화책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그럴 때마다 형은 몇마디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적당히 피하기도 하면서 제 할 짓을 계속하는 솜씨가 형답게 의젓하기도했지만 개구장이 동생한테 줄창 당해본 솜씨임이 역력했다。이런 형제를 간간이 말없이 바라보는 부부의 눈길은 한없이 정겹고 부드러웠다。자식을 흠뻑 사랑하되 잔소리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교양미가 철철 넘치는 부부였다。

어느 청명한 일요일오후의 이들 네식구의 일가단란은 쇼윈도에 전시된 것처럼 하자없이 완벽했고、괴어있는 물처럼 도무지 변화의 가망이 없어보였다。그러나 어른들이 모처럼 만든 이런 화평의 시간이 다섯살짜리 개구장이한테까지 쾌적한것은 아니었다。아이들을 살맛나게 하는건 괴어있는 낙원이 아니라 개구멍이라도 좋으니 변화할수있는 돌파구였다。

형을 아무리 지분거려도 소용이 없자 아우는 마침내 형이 보고있는 만화책을 홱 낚아채서 도망하기 시작했다。그러나 곧 성난 형에게 붙들린 아우는 만화책을 몸으로 덮치고 포복하면서 간간이 손을 배밑에 넣어 책을 찢어내기 시작했다。이 새끼가! 형이 참고 참았던 분노로 작은 난로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이런 형이 재미나 죽겠다는듯이 아우는 깔깔대며 책을 찢어내는 짓을 계속했다。마침내 형이 아우를 깔고앉아 패주기 시작했다。포복한 자세로 형에게 대항하기가 불리해진 아우가 아프다고 엄살을 떨다가 아빠 엄마에게 구원을 청했다。

혼자 두는 바둑에서 흥연 묘기라도 터득했는지 무릎까지 치며 삼매경에 빠져있던 아빠는 싸우는 형제를 흘긋 한번 바라보았지만 여지껏의 방임주의를 바꿀만큼 대단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않았다。엄마도 마찬가지였다。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통에 소매의 파배기 무늬가 헷갈린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문득 뜨개질을 내던지고 일어섰다。무서운 얼굴이었다。

주간女性 (416) 533-2361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通禁없는 世上「24時체제」

——交通·접객업소대상 긴급 새生活대책세워

2월부터 야간高速버스 운행
深夜택시 割增料 20%더받아

통금해제 조치에따라 고속및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등 단거리대중교통수단의 연장운행조치등 후속보완조치가 잇따르고있다. 관련부처별로 마련된 조치중 24시간 운행되는 택시는 종전 통금시간에 해당하는 0시부터 새벽4시까지는 할증료 20%를 더받게됐고 검찰의 야간근무체제도 강화됐다。 또 음식점과 유흥업소등의 영업시간이 철폐됐고 주유소의 영업시간도 연장됐다。

택시 24시간·시내버스 0시30분까지
市外버스 0시·地下鐵 30분연장運行
國際線여객기離着陸 2시간 더늘려

◇서울시는 통금해제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4일상오 서울시내 접객업소·운수업·주유소대표들과 모임을 가졌다。

【交通部】 택시는 24시간 운행되고 시내버스는 밤12시30분까지, 직행좌석버스는 새벽1시까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밤12시까지 연장운행된다。 또 지하철및 수도권전철의 경우도 지역에따라 시간차이가 있으나 현행보다 30분간씩 연장됐다。

또 택시의 경우는 심야운행시간(0시~새벽4시)에는 현행미터요금의 20% 범위내에서 할증료를 받도록했다。

교통부는 또 고속버스의 경우 2월1일부터 운행시간이 4시간이상 거리인 주요도시간에 밤12시이후의 야간고속버스운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열차와 여객선의 운행시간은 조정없이 현행대로 운행한다。

교통부가 마련한 교통수단별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같다。

▲시내버스=현행 상오4시30분~밤12시까지를 밤12시30분까지로 30분, 직행좌석버스는 밤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배차간격및 운행횟수는 지역사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밤10시~상오7시사이에는 현금승차시 할증료를 면제한다。

2단계조치는 수요가 증가할때 일반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을 추가연장하고 주요간선별 직행좌석버스의 24시간운행도 실시한다。

▲택시=24시간 운행하되 심야운행에따른 20%의 할증료를 받도록한다。

회사택시는 보유대수의 10분의 1에대해 24시간 운행을 의무화하고 운전사의 과로를 막기위해 1일2교대제를 실시한다。

개인택시와 한시택시의 야간운행은 전면 자율화한다。

▲시외·고속버스=시외버스는 현행 상오4시30분~밤11시까지를 밤12시까지로 1시간을, 고속버스는 상오6시~밤10시40분을 밤12시까지 1시간20분 연장한다。

오는 2월1일부터 서울을 기점으로 부산 釜山 浦項 馬山 晋州 麗水 木浦 光州 東草 江陵등 주요도시간에 야간고속버스운행을 검토한다。

▲철도및 전철=막차 시간을 30분연장한다。 서울역을 기준으로 막차출발시간을 ▲水原은 밤10시46분에서 11시13분으로 28분 ▲仁川은 밤10시49분에서 밤11시21분으로 32분 ▲城北은 밤11시12분에서 밤11시45분으로 33분 ▲九老는 밤11시20분에서 밤11시55분으로 29분 연장했다。

▲철도=일반열차운행시간은 조정없이 서울~議政府간만 城北까지운행구간을 연장한다。

▲항공=오는 4월1일부터 국제선 여객기의 경우 출발시간을 밤9시30분에서 밤11시20분으로 2시간, 도착시간은 상오7시10분에서 상오5시10분으로 2시간 연장한다。 화물기는 출발시간이 밤9시20분에서 새벽2시까지, 도착시간은 상오7시40분에서 새벽1시까지 연장된다。

또 국내선의 경우는 최종출발 시간이 현행하오7시40분에서 밤11시까지, 최종도착시간은 밤8시40분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지하철및 수도권전철 (서울역기준)

구분 종착역	첫 차	최종열차 통과시간 현행	조정
수원	06:04	22:45	23:13
인천	05:16	22:49	23:21
성북	05:00	23:12	23:45
구로	05:16	23:26	23:55

◇항공기운항시간 (4월1일부터)

			現行	조정
국내선	최종출발		19:40	23:00
	〃 도착		20:40	24:00
국제선	화물기	출발	21:20	02:00
		도착	07:40	01:00
	여객기	출발	21:30	23:20
		도착	07:10	05:10

◇교통수단및 운행시간 조정내용

	현행	조정후	비고
시내버스	04:30~24:00 (종점도착)	04:30~00:30 (종점도착)	30분연장
직행좌석버스	〃	04:30~01:00	1시간 연장
택시	04:00~24:00	全日制	4시간 〃
시외버스	04:30~24:00	04:30~24:00	1시간 연장
고속버스	06:00~22:40	06:00~24:00	1시간20분연장
지하철·전철	05:00~22:45	05:00~00:13	31분연장

接客업소 영업制限 철폐
注油所·약국·병원 당번制로 徹夜

【접객업소】 보사부는 통금해제에 따라 5일부터 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을 완전철폐, 심야영업행위를 각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음식점·다방등은 현재 밤11시까지로·제한된 영업시간을 각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신고, 점포안팎에 영업시간을 게시한후 5일부터 자유롭게 영업할수있으며 관광호텔나이트클럽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새벽4시까지 영업하게 된다。

한편 카바레와 요정은 영업시간을 새벽1시에서 2시사이로 제한키로하고 업자측과 협의중이며 이발소·미용소의 영업시간은 업자들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보사부는 지난76년 7월29일부터 총리지침에따라 대중·전문유흥음식점·다방·제과점등의 영업시간을 겨울철에는밤10시30분, 여름철에는 밤11시까지로 제한했었다。

보사부는 그러나 현재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 실시하고있는 접객업소의 휴일제는 그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소·가스충전소】 주유소의 영업시간은 현재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에서 새벽4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로 5시간 연장된다。

주유소가 문을닫는 새벽1시부터 4시사이에는 야간당번업소로 지정된 39개주유소가 영업을 한다。

한편 가스충전소의 영업시간도 종래 새벽6시부터 새벽4시부터 새벽1시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시내충전소들중에서 매일 당번업소 17개소를 지정, 철야영업토록 했다。

【병원·약국】 한편 보사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응급실의 진료요원·장비를 늘리는것과함께 각과별당직이 아니더라도 각과별로 당번의사를 정해 야간에 자가대기토록 했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동원할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또 현재 밤10시~11시에 문을닫고있는 약국에 대해서도 일부약국의 개업시간 연장이 필요할것으로 판단, 대한약사회측은 내주초 열리는 약사제도위원회에서 각지역 약사회별로 윤번제로 야간 개업연장업소를 정하는등 통금해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遞信部】 체신부는 4일 통금해제에 따라 전국 각우체국과 전신전화국의 근무시간과 취급업무를 필요한경우 연장또는 확대실시키로했다。

체신부는 지금까지 전신전화업무가운데 창구통화서비스와 창구에서 접수하는 전보는 상오5시부터 밤12시까지, 저 또우정업무는 일반창구에서는 상오9시부터 하오5시(4월~10월까지는 하오6시)까지 취급했었다。

【法務部】 李鍾元법무부장관은 4일상오 검찰수뇌회의를 긴급소집, 『전국검찰은 관내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감안, 적절한 규모의 야간근무검사등 필요한 요원을 배치해 야간범죄수사와 수사지휘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李장관은 또 『전국공항및 항만의 출입국관리공무원들도 24시간 교대근무태세를 갖추어 야간에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사열업무에 지장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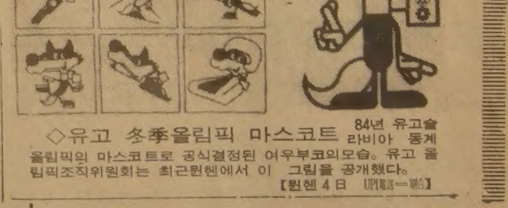
이에따라 대검은 우선적으로 서울·부산·大邱·光州·仁川지검에 대해 야간영장발부업무및 야간수사지휘를 위해 당직검사가 24시간근무토록했다。

검찰은 또 각지검및 지청은 야간통행금지해제에편승, 심야에 발생하는 폭력범·도범·공안사범등 3개범죄에 대해서는 다른시간대의 범죄보다 엄단할것과 야간통금해제조치이후 범죄동향이나 치안여건에 특이한 변동상황이 있을경우에는 수시보고할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유료도로】 오는 3월말까지는 현행과 같이 차선별로 2개차선만을 야간에 개방하고 4월1일부터는 전차선을 개방할방침이다。

그밖에도 극장·백화점·시장등의 영업시간이 업자들의 자율조정으로 결정토록 되었고 서울시 당국은 소방순찰을 1일 2회에서 3회로 강화토록했다。

【관광】 관광호텔 (코피숍·바·나이트클럽등)·극장식당·한국식요리점등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北岳스카이웨이등 시내야경과 워커힐쇼·고전무용공연장등 야간관광코스를 적극개발한다。



◇유고 冬季올림픽 마스코트 84년 유고슬라비아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공식결정된 여우부코의모습。 유고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최근뮌헨에서 이 그림을 공개했다。【뮌헨 4日 UPI電送=聯合】

在學生은 校長재량에
校服자율화 내년新入生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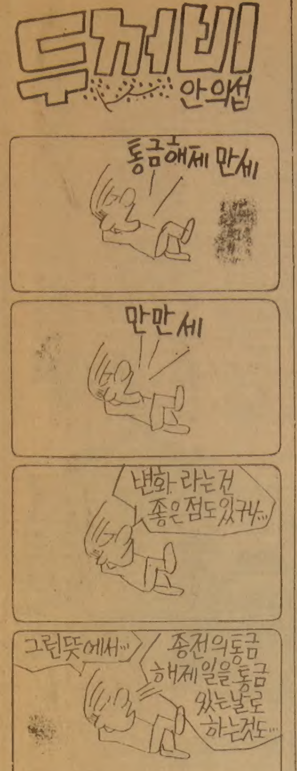
文教部

문교부는 4일 교복자율화조치의 실시시기및 범위에대해 「83학년도 신입생」부터라고 못박고 「재학생들은 내년부터 자유복을 입을수있는가의 여부는 학교장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문교부장학관계자는 교복자율화에 대한 문교부의 결정은 「내년신입생부터 교복제도를 없앤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재학생에관한사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문제」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내년2·3학년이되는 학생들에게까지 문교부가 자유복을입도록 할경우 현재의 교복을버려야 하는등 경제적손실이 있기때문에 이에관한 결정은 학교장들이 해당학교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 실시하도록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학교장들은 내년 2·3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에대해▲현재의 교복을 그대로입힐것인지▲자유복장으로 바꿀것인지▲교복과 자유복을 혼용토록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이관계자는 말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호텔 同宿 알몸女人變死 洞직원을구속

【釜山=聯】속보=코모도호텔 알몸 여사무원 추락사사건을 수사중인 釜山中部경찰서는 4일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 달아난 釜山市中區영주2동사무소직원 金錫奎씨(28·中區瀛州2洞288)를 강간등에 의한 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동료 孫광일씨(25)등 10명과 함께 지난해12월24일 밤9시께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참가했다가 25일 새벽3시30분께 中區南浦洞2가 태양 고고클럽에서 만난 李京南양(21·西區大新洞1가225)을 코모도호텔 10층25호로 유인, 강간하려다 李양이 반항하자 옷을 벗긴뒤 목욕탕으로 끌고가 커튼을 찢어 입을 막은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李양이 실신하자 죽은줄 알고 호텔창문을 통해 15m아래 3층베란다로 던져 숨지게했다는 것。

金씨는 범행후 호텔을 빠져나와 달아났다가 구랍30일 하오 大邱東部경찰서에 자수, 釜山으로 압송돼 이날 구속됐다。

암달러商유인 강도 一黨3명 구속

서울 鍾路경찰서는 4일 여암달러상을 호텔로 유인,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수표등 1천5백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許鍾喆씨(22·전과3범·부산海雲臺區盤松洞765의78)와 金福萬씨(22·전과3범·부산 西區東大新洞2街101) 胎萬씨(26) 형제등 3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구랍 30일하오 2시30분께 여암달러상 宋順子씨(28·서울 江西區禾谷洞292의16)와 吉用道씨(63·서울 江東區 鷲院洞 342의103)등 2명을 서울 鍾路區 淸進洞92 서울호텔 308호실로 유인, 주머니칼로 위협해 공업용테이프로 양손을묶고 입을막은뒤 현금3백85만원과자기앞수표1천1백25만원등모두1천5백10만원을빼앗아달아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10일하오 2시께도 부산 中區昌善洞 국제시장 앞길에서 부산1라 1368호 포니승용차에 40세가량의 여암달러상을 태워 현금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正初연휴 事犯 2백12명 立件

경찰은 신정연휴 3일동안 서울시내에서 강력범2명을 비롯 폭력1백52명, 도범62명, 퇴폐사범62명, 기타3백90명등 모두 7백80명을 단속, 이중 2백12명을 형사입건하고 1백35명을 즉심에, 나머지 1백33명을 훈방조처했다。

이는 지난해 8백89명에비해 1백9명이 줄은 것이다。

또 연휴기간동안 교통사고는 1백24건이 발생, 9명이 사망하고 86명이 중경상을입었으나 하루 평균건수(43건)는 평일에 비해 20여건이 줄어든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휴기간동안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2건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으며 3천8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農協여직원 被殺
大邱 歸家길 半裸로 목졸려

【大邱=聯】1일상오8시께 大邱市北區砧山2洞105 한우아파트 모델하우스앞 빈터에서 농협단위조합 여직원 權五男양(23·大邱市北區砧山2洞100의9)이 목졸려 숨져있는것을 이마을 金선의여인(7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여인에 따르면 權양은 반나체로 목이졸린흔적과함께 비스듬히누워숨져있었다는것。

權양은 大邱에서 12㎞쯤떨어진 慶山郡河陽농협에서 지난31일하오7시께 근무를마치고 河陽성당에서 미사를본뒤 이날밤9시30분께 귀가중 자기집과 불과 3백50m거리에서 변을당했다。

한편 경찰은 31일밤늦게 사건현장 부근에서 20대남자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들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에따라 인근 불량배를 중심으로 수사하고있다。

坑내 가스爆發 9명死亡
太白 함태광업소 연기꽉들어차 救助지연

【太白=聯】3일하오7시30분께 太白市所道洞 함태광업소 함백갱 5편3크로스막장(갱입구에서 2천8백50m지점)에서 메탄가스가 폭발, 굴진작업을 하던 金鍾基씨(32)등 광부9명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광업소측은 이날 갱에서연기가 피어올라 사고를 알고 30명으로 구조반을 편성, 갱내에 들어가려했으나 가스배출이실패 갱내에 진입하지못하다가 환풍기로 통풍을시키면서 사고지점에 접근 4일새벽2시께 金鍾基씨등 광부 3명의 시체를 인양했다。

구조반은 계속 숨진 광부들을 찾고있다。

사고가 나자 광부가족들이 광업소에 몰려와 한때 소동을 벌이기도했는데 광업소측은 가스를 제거한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숨진광부는 다음과같다。

▲金鍾基(32·太白市所道洞)▲李錫哲(36·〃)▲李成福(24·〃)▲秦炳燮(36·〃)▲金信泰(32·〃)▲秦燦(27·〃)▲崔正煥(37·〃)▲李鍾浩(35·〃)▲金…

遺族에 24만원씩줘 朴江原知事

한편 朴鍾汶강원지사는 4일 함태광업소 갱내폭발사고로 숨진 광부유족들에게 각각 장례비 6만원, 조위금18만원등 모두 24만원을 주었다。

趙誠鎬太白시장도 이날 조위금으로 각각 10만원씩 전달했다。

6살女兒 轢死 後進 시내버스에

3일 하오5시55분께 서울城東區 聖水2街 649의1 태진운수 시내버스 종점에서 이동네 朴貞任씨(33·여)의 장녀 金英美양(6)이 후진하던 서울5사8424호 시내버스(운전사 李壽鳳·44)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金양은 버스에서 내린뒤 어머니의 손을 놓고 혼자 집으로 가다가 변을 당했다。

중앙관상대 명칭 中央氣象臺로바꿔

중앙관상대의 명칭이 1일을 기해 중앙기상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중앙기상대는 5일 상오10시 현판식을 갖는다。

중앙기상대는 48년 정부수립과함께 중앙관상대로 발족, 기상관측예보와 천문관측업무를 해왔으나 국립천문대의 발족으로 그동안 기상관측예보 업무만을 해왔다。

광고는 왜 필요한가….

다음의 글은 미국의 유명광고 전문지가 최고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광고의 효용성, 광고의기능에 대해 광고주들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은 위스키, 커피, 시가등과 같이 광고를 많이하는 상품들을 멀리하는 대신 광고를 심하게 하지않는 대용상품들을 좋아하는 소비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상품들과 서비스들은 광고효과를 보고있다. 예를들면 디자이너 청바지를 들수있다.

원래 광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첫째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케 한다고 두둔하고 있다. 둘째 광고는 소매가격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셋째 신문, 잡지, 레디오, TV등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수입원이 됨으로써 뉴스와 대중들을 위한 연예 프로그램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넷째 광고는 대량생산품들을 위한 대량의 판매시장들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섯째 새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여섯째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것이다. 전국 방송망을가진 TV의 하루 평균광고량은 1970년이래 거의 곱절로 늘어나 현재 585건에 달하고있다.

한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한 가정당 681달러씩 소비한 금액과 맞먹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광고성장률은 지난 1900년도초이래 미국인구 성장률보다 빠르며, 1976년이래 GNP와 개인소비지출 상승률보다 높다.

일반상품제조업자들뿐 아니라 지방, 주, 연방정부들도 광고를 늘이고 있다. 예를들면 2년전 미군모집광고에 9천9백달러를 소비했던국방성은 금년에 약 1억4천만달러로 증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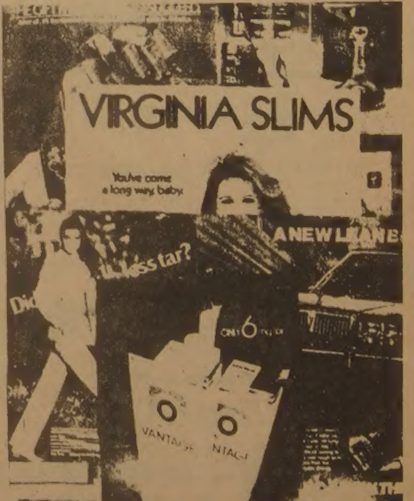
광고량의증가현상이면에는 판매시장을 둘러싼 광고주들의 경쟁에 있다. 업자들은 자기상품이 잘팔리지 않게되면 다른 광고는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을 바꾸도록 자극하거나 새상표를 사용하도록 자극하지 전반적인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광고량은 계속 늘고있다. 작년도 광고비용은 총5백46억달러였다. 이것은

국민총 생산고(GNP)의 2.1%와 총개인소비지출액의 3.3%에 각각 해당하며, 미국의 업자들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헐뜯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같은 광고는 보복을 유발시켜 광고게재량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광고요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모두가 자기의 판매시장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결과 업자들의 생산비용만 오르게 되었다. 광고량의 증가현상은 경제가 침체되고 판매가 부진하면 광고량도 줄어들던 전통적인 광고양상에 이변을 초래했다. 이전에는 장사가 잘안되면 광고예산을 줄이는것이 상식이었으나 이제는 거꾸로 광고예산을 더 높이고 있다.

유명한 초코레트 제조회사인 허쉬가 좋은예이다. 좋은품질 제공이 가장 좋은광고라고 주장하며 전통적으로 광고를 기피하던 허쉬는경쟁회사가 광고를 통해 판매시장을 석권하자 할수없이 광고를 시작했다. 허쉬는 한때 초코레트 제조원료인 코코아값이 폭등, 이윤이 떨어지자 광고를 줄였다. 그결과 매상량이 또 떨어졌다. 다시는 이같은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허쉬는 판매가 부진할 때라도 계속광고예산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도 경쟁업자를 따라잡지 못하고있다.

작년도 광고비용 5백46억달러 가운데 3백3억달러는 전국적인광고에 소비되었다. 이것을 광고매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 84억달러(28%)●우편 76억달러(25%)●잡지 31억달러(8%)●비지네스 정기간행물 17억달러(6%)●라디오 10억달러(3%)●옥외광고 4억달러(1%)●기타 57억달러(19%).



한국일보사 광고부제공
533—2361~4

머리·옷의 革命…어떤 變化가 올까

各界 의견과 「10代의 패션」

오랫동안 논란이 거듭돼온 중·고생들의 머리형과 교복·교모가 드디어 자율화되었다. 항상 그렇듯이 「자율화」에 대한 불안과우려가 부분적으로 일고있긴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당사자인 학생들, 교육계, 학부모, 관련업계로부터 폭넓은 환영을 얻고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짧은머리와 교복과 교모안에 획일적으로 가두어야했던 그들의 다양한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수있게 되었으며, 이를통해 생활문화에대한 폭넓은 산교육을 받을수있게 되었다. 이번 자율화조치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사치, 탈선, 빈부격차등에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런 문제들은 자유에 대한 책임의식과 분별심을 길러줌으로써 해결해나갈 문제이지 묶어둠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1년의 옷차림을 하복·동복으로 나눠 세탁한番도 없이 계속 입어야하는 불결한, 가장 감수성이예민한 청소년들을 어두운 색깔의 제복에 가둬 사회와의 사이에 벽을 쌓아두려는 교육자세들은 「民主市民교육」에 장애가 될뿐이며 빨리 개선할수록 좋을것이다. 교복·머리스타일 자율화를 계기로 中·高校長,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과 디자이너들이 권하는 「10代의 패션」을 모아본다.

신선한 「짧은 상고머리」형

10代의 헤어스타일 그레이스·李

미장원에 오는 여성들중에는 中年을 넘었는데도 자기 얼굴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역효과가 나는 스타일을 고집하는 분들이 꽤 있다. 한참 멋을 내고싶고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시절에 전혀 머리모양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자랐으니 이런 답답함도 무리가 아니다.

여학생·남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머리형을 택할수있게 되었다는 뉴스는 참으로 새해를 밝게하는 소식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일찌기 청소년들에게 머리형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지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들이 당분간 「시행착오」를 계속한다해도 너무 나무라거나 또다시 강요를 하지말고 스스로 맞는 스타일을 찾을때까지 당분간 지켜봐줘야겠다.

여학생들의 머리칼은 한번도 퍼머를 하지않은 싱싱한 아름다움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우선 이 머리칼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머리형을 택하는게 좋겠다. 퍼머는 학교에서 허락하지도 않겠지만 10代의 얼굴에는 웨이브가 어울리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한다.

여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는데 우선 「짧은 상고머리형」은 손질이 간편하고 그나이의 귀여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형이다. 귀가 드러날 정도로 상큼하게 커트한 상고머리는 또 가장 멋진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짧은 단발이나 땋은머리만 해왔으니 이제야말로 다른 머리형을 해보겠다고 벼르는 여학생들은 머리를 뒤로 묶으면 좋을것 같다. 조금 짧은 머리는 포니테일형으로 치켜서 묶고, 긴머리는 아래로 모아서 묶거나 한갈래로 땋으면 예쁘다. 머리를 묶는 끈은 금실, 은실, 색실등으로 만들거나 리번을 이용한다. 한국여성의 얼굴에는 이 뒤로 묶는형이 일반적으로 잘 어울린다.

남학생들은 역시 그동안 「짧은머리」에 싫증이나서 누구나 머리를 기르겠다는 마음을 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리를 길게한다고해서 여학생처럼 뒷머리를 치렁치렁하게 하는것은 매우 흉해 보인다. 계단식으로 커트를 하여 전체적으로는 짧은머리로 목과 귀밑을 감싸는 형이 신선해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에서 허용해온 스포츠형 머리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로 알맞는 스타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많은 남학생들이 초기에는 긴머리를 고집하다가도 차차 스포츠형으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학생들에게, 특히 남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말은 멋을 부리려면 우선 청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머리를 자주 감고 몸을 깨끗이 해야만 멋도 살아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용업계로서는 남학생·여학생들의 머리를 함께 커트해주는 중고생전용의 값싼 「커트의 집」을 많이 개발해나가야 될것이다. 【미용연구가】

女學生에는 단발 없애라

긴머리는 묶거나 땋으면 예뻐
남학생은 목·귀 감싸는 커트型

◇10代소녀를위한 헤어스타일。생머리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스타일로 머리를 묶을땐 끈이나 리번으로 귀여움을 더해준다。【디자인=그레이스·李】

實用的이면서 멋도 나게

10代에 알맞는 衣裳 申惠順

現 校服바지·스커트 활용
파카·스웨터·잠바로 變化추구
메이커들 값싼 영·루크 開發을

교복이 자율화되면 학생들이 사치를 하게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되리라는 걱정은 곧사라지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부유층 자녀들만이 다니는 몇몇학교에 가본일이 있는데 학생들은 한결같이 블루진에 와이셔츠나 스웨터정도를 입고있을뿐 사치한 옷차림은 찾아볼수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10代들은 양장에 대해 무식했던 우리어른들 세대에비해 옷에대한 분별력을 갖고있으므로 실용적이면서 멋이있는 그들의 패션을 키워나갈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중·고생들은 교복이 없어진후에도 지금까지 입었던 교복을 바탕으로 옷차림을 바꿔나갈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야만 경제적 부담도 덜어질것이다. 남학생들은 동복바지위에 파커나 스웨터를 입을수 있겠고, 여름에는 하복바지위에 남방셔츠, 와이셔츠, 티셔츠등을 입으면 충분할것이다. 지금까지 갖고있던 교복이외에 블루진바지나 점퍼를 더 마련하면 얼마든지 변화있는 차림을 할수있다. 지금까지는 동복의 경우 한번도 세탁을 안한채 땀과 때에 전 옷을 대부분 입어왔지만 이제부터는 깨끗이 빨아입도록 하는것이 의생활교육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여학생들은 교복스커트에 조끼, 스웨터, 블라우스등을 마련하여 변화있는 차림을 할수있고 또 교복과 같은 빛깔이든가 체크의 주름치마를 한벌 마련하면 교복 上衣와 잘 어울린다. 옷은 꼭 사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털실로 조끼, 스웨터, 목도리등을 짜서 멋있는 차림을 연출해보는 등 스스로 머리와 손을 써보는 훈련을 해야한다.

각 기성복메이커들은 청소년들을위한 영·루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부담이 가지않는 가격으로 공급해야할 것이며, 값이 내려갈수록 수요도 늘어날것이다. 현재 몇몇 메이커에서 영·루크를 개발하여 상당한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가격을 좀더 싸게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각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illegible] 각학교에서 [illegible] 명무실해질 염려가 있기때문이다. 그나이의 학생들이 입고싶어하는 여러가지 색깔과 디자인을 허용하여 스스로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에게맞는 패션을 찾아나가도록 지도해야 할것같다.

우리생활에서 옷은 이제 단순한 생활필수품이아니며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즐기는 하나의 무기가 되고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실정이며 우리의 경제수준도 그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 한참 멋을 부리고 싶고, 멋에대한 센스 또한 예민한 나이에서 부터 의생활에대한 바른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나라의 패션수출도 전망이 밝아질것이다. 【국제복장학원부원장】

◇10代를위한 옷차림。지금 가지고있는 교복에 재킷, 블라우스, 스웨터, 치마등을 곁들여 변화있는 차림을 하도록한다。【디자인=申惠順】

사치않는 단정한 새 모습을

校長들의 의견

解放感보다 自律精神기르게 계도해야
基準필요하지만 다양성은 잃지않도록

◀金仁淑교장(京畿高)‖이번조치가 학생들의 의식을 자율화·민주화하는데 큰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짧은머리에 제복을 입은 학생은 우선 통제하기는 좋겠지만 학생들의 성장이나 판단력을 기르는데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것이 숨길수없는 사실이다.

일부 학부모나 사회일각에선 학생들의 머리를 기르도록하면 생활지도 또는 교육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해나가면 능히 극복할수있을것이다.

교복의 폐지와 자율화로 빈부의 차, 또는 違和感이 생길지도 모른다지만 그간 국민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학생들도 검소한 생활을 해가면서 자기의 개성도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鄭佑賢교장(서울藝高)‖우리학교의 경우 오래전부터 머리를 자연스럽게기르게했는데 그로인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정신을 길러주는데 큰도움이 되리라고믿는다.

사춘기의 중·고교생들이 교복을 입음으로써 느끼는 억압감은 굉장하며 개성을 발달시키는데 장애요소가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학생들은 사실 어른들이 상상할수없을 정도로 머리모양이나 옷맵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교복자율화조치로 이들이 사치성향을갖지않도록 학교나 부모들이 성실히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도 자신의 외형을 잘 가꿈으로써 남에게 단정한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할것이다.

◀吳庚仁 교장(成德女商)‖대찬성이다. 늦은감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세계추세를 보더라도 머리와 옷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물론 교복과 머리를 자율화함으로써 당분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드러난 문제점은 시간을두고 해결해 가면 된다. 어느정책이나 갑자기 바꾸면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오히려 교복과 머리를자율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점보다 훨씬 많다. 한예로 학생들은 평소에 보이지않는 굴레에 묶여지내던 기분을 훨훨 털어버리고자기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자율정신을 기르게 될것이다.

◀成聖鎬교장(冠岳女商)‖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당분간 부작용이 따를것 같다. 학생다운 머리와 복장이 어느 수준이어야하는가에대해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할 것이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머리의 자율화문제를 두고 학생회 간부회의를 열어보았는데 막상 자율화에 찬성한쪽은 30%에불과했다. 나머지는 우리학교의 딴머리가 좋다고해서 지금까지 왔다.

교복에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해본적이 없으나 크게 자율화를 원하는 기미는 느끼지못했다.

그것은 우리학교 교복의 디자인이 비교적 현대적이고 부유층이 거의 없는 실업학교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교복이 자율화될때 부유층이많은 학교에서는 솔선수범하여 사치풍조를 배격해야 이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것이다.

◀黃明周교장(槇一高)‖언젠가는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했었다. 앞으로 학교의 특수성과 실정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되면 교복과 머리의 자율화가 학생들에게「마음대로」란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 높은 차원에서선진국처럼 향상된 문화의척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해방감만 갖지않도록 계도를 해야한다. 학생들도 「자율화」란 말의 뜻대로 항상 자기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 것이다.

◀李在祺교장(祥明女師大附屬高)‖교복과 두발(頭髮)의 자율화는 시대적인 추세로보거나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자율화는 혼란과 학부모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장재량에 맡겨주었으면 한다.

우선 머리는 우리 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 자율화하고있다. 문제는 교복인데 너무 풀어 놓는 경우 부유한 집안과 가난한 집안학생들간의 격차가 심해 자칫 違和感을 조성할 우려가있다. 교복에 관한한 조금씩 자율화시켰으면한다.

◀李寧承교장(長薰高)‖자율화를 찬성하나 우리의 여건하에서 지나친 자율화는 방종에 흐른다는점에서 현실과의 조화를 꾀하려고한다.

지금까지는 스포츠형(2㎝)정도로 허용했는데 지금생각으로는 3㎝정도가 어떨까한다.

교복에 관해서는 사치스러운 복장, 예컨대 신사복에 넥타이를 매는것은 곤란하지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고등학교는 교련문제도 있고해서 아무래도 편한 복장이라야할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다른학교와의 균형관계를 연구 검토해서 우리의 실정에맞도록 한계를 결정하겠다.

◀孫貞順교장(同德女高)‖오래전부터 바랐던것이다. 학생들중에는 커트머리가 예쁜 경우가있고 긴머리가 더 어울리는 경우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일선교사들중에는 신중한 분들이 많아 이를 견제해왔다. 학생들이 머리를 멋대로할때머리를풀어제치고 다방같은데 출입하면 어쩌냐는 우려였다. 그바람에 학생회장 선거때마다 교복자율화는 최대의 이슈로등장했다. 복장의 경우도 경제적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드러날까하는 걱정이 없지않지만 꿈많은 젊은이들을 검은색이나 곤색에 가두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요즘 여학생들은 집에오면 별도로 사복을 입고있으니 교복자율화는 생각처럼 큰 낭비도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의 의견

◀吳承珉(서문여고1년)

교복을 입지 않아도되고 머리도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것을 생각하니 소리라도 치고 싶을 만큼 기뻐진다.

어른들 가운데는, 우리에게교복과 머리형에대해 자유를주면 지나친 [illegible]과 머리형으로 어른들의 눈 살을 찌푸리게 할 것으로 여기는분이 많지만, 그런여학생은 그렇게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들이 私服으로 입고다니는 옷을그대로 통학복으로 입는 수준으로 하면 여전히 여학생답게 귀엽고 단정한 수준을 유지할수 있기때문이다.

나는 주로 발랄하고 스포티한 편안한 옷을 입고싶다. 주름치마나 격자무늬의 스커트, 또는 청바지와 블라우스, 파커, 점퍼등을 입고 싶다. 세탁을 자주해도 오래입을수 있는 값싼 옷감으로 만들어진 단순하고 깨끗한 디자인의 옷이 좋을것같다.

◀鄭晟元(殷文高1년)

복장과 머리가자율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인가 확 트이는듯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옛날엔 복장을 통해서 빈부의 차이가 났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고교생뿐 아니라 나이많은 연령층의 남녀 어른사이에서도 복장에 따라 빈부차가 나는것 같지가 않다. 최근에는 값싸고 보기 좋은 갖가지 옷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복장때문에 마음을 상하거나 우쭐해지는 학생은 그다지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머리형을 지금 상태에서 크게 변화시키고 싶진 않다. 학생답게 단정하게 기르고, 긴머리는하지않겠다.

알림 한국新春文藝당선작품은 6일字부터 揭載합니다.

학부모의 의견

◀李京姬씨(수필가)

나는현재 고3과 고1 학생인 두여학생을 두고있다.

이 두 딸아이는 일요일이 되면 거울앞에 서는 시간이 좀더길어진다. 그것은 일요일에만 유일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입을수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 의해서 규격화시키고, 자기가 자신만의모습을 빼앗긴다는것은 좋지 않다.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만의 개성과 기질을 만들어갈줄 알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이유와 학생의 사치등을 이유로 교복과 머리형을 묶어놓아 왔지만, 내 생각으로는 인생의 멋과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기위해서도 복장과 머리형은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인생에서의 자기특유의 감각과 멋을키우는 문제는경제적인사정과 학생들의 탈선의 가능성보다 더높은 위치에 두고싶다.

◀安章煥씨(소설가)

학생들의 교복과 머리형의 자율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필연적인것이었다. 학생시절에 머리를 모두 깎이거나, 꼭 검정색깔의 교복을 입게하는것은 시대에맞지않는 일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부한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분주해서 교복등에 대해 억압감을 느끼거나 싫다거나하는 느낌을 갖지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기개성을 일깨워주는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기개성을 키우기 위해선 우선 복장과 머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기의 개성을 만들어가는 기능을 갖게하는것과 옷차림의 센스를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어려서부터 옷이나 머리에 대해 자기 스타일을 갖게 하고 어떻게 입고 치장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면 이다음에 성인이되어서도 쓸데없는 옷사치나 쓸데 없는 신경을쓰지않아도될것이다.

한국 3勝1敗로 準優勝

中共과 세트得失 뒤져

西獨 國際女子排球

【브레멘(西獨)=金仁會특파원】西獨 브레멘에서 벌어진 82년도 국제여자배구대회에서 한국은 3승1패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난 1일부터 이곳 브레멘 시민체육관에서 한국, 西獨, 中共등 3개국팀이 출전한가운데 더블리그로 벌어진 대회에서 한국은 대회이틀째인 2일 풀세트 접전끝에 中共을3-2로 꺾었으나 첫날 中共에 3-1로대패, 中共과 공동3승1패를 마크했으나 세트득실에서 뒤져 2위에그쳤다.

한국은 첫날과 마지막날에 西獨을 두번다 스트레이트로 제압했다.

이번대회에 출전한 中共팀의 공식명칭은 81구대팀. 中共의 예군선발팀으로 교환원과 간호원이 대부분이며 평균신장 176·3㎝. 지난 월드·컵대회에 대표선수 3명을출전시켰으나 이들 3명은 휴가중으로 이번대회에는 불참했다. 이팀은 中共국내선수권을 여러차례 차지했으며 日本대표팀도 물리친적이 있는 中共최강팀으로 알려졌다.

◇전적

▲1일 中共 3-1 한국, 한국 3-0 西獨

▲2일 한국 3-2 中共, 中共 3-0 西獨

▲3일 한국 3(15-7, 15-9, 15-8)0 西獨, 中共 3(15-8, 15-4, 15-11)0 西獨

▲종합순위 ①中共 3승1패 ②한국 3승1패(이상 세트득실차) ③西獨 4패

한국代表 준우승

렉스J테니스 日에逆轉敗

【뉴욕=外信綜合】3일 뉴욕에서 폐막된 렉스J테니스대회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의 李靜明·金一順여자복식조는 14세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4일 선수단이 알려왔다. 安養西女中에재학중인李·金조는 준결승에서 쿠바조를 2-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日本조에게 2-1로 역전패했다.

▲전적 ▲준결승 李靜明·金一順 2(6-4, 7-5)0 페르난데스·소토 ▲결승 가지다·모리타 2(5-4, 6-2, 6-7)1 李靜明·金一順

美올림픽委 發表

81년도 최우수選手 英육상선수 코選定

【콜로라도스프링스31日UPI=聯】美올림픽위원회는 31일 1천5백m등 세계기록 3개와 국내기록 1개를 보유하고있는 英國의 세바스천·코선수를 81년도 세계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美올림픽위원회는 또한 세계피겨스케이트챔피언·스코트·해밀튼(22)과 76년올림픽사이클 금메달리스트로 지난해 은퇴한 셰일라·영·오초위츠(30)를 81년도 美최우수아마추어선수로 선정하는등 금년도 각종목 우수선수 61명을 발표했다.

金메달의 執念

국가대표 선수들의 강훈이 재개되었다。泰陵선수촌 개선관에서 열을올리고있는 레슬링선수들。

서울 선발優勝

中共廣州선발 격파

香港都市間 高校축구

【香港3日=聯】永登浦工高팀을 주축으로한 서울고교선발축구팀은 3일하오 홍콩의 나쌍레고교에서 거행된 제1회 도시간고교 초청축구대회 결승전에서 中共廣州고교선발팀을 1-0으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선발팀은 이날하오 3시15분부터 나쌍레 球場에서 열린 결승전 전반에서 고전했으나 후반들어 廣州팀을 완전히 압도, 우세한 경기를펼치던중 中共골키퍼의 반칙으로 얻어낸 프리·킥을 金德載(경신고)가 받아 강슛, 결승골을 따냈다.

이번대회에는 8개도시선발팀이 참가했다.

서울고교선발은 준결승서 방콕팀을 4-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崔忠日 마닐라到着

16일比서 타이틀戰

【마닐라2日UPI=聯】세계권투평의회(WBC) 슈퍼·페더급 랭킹1위인 한국의 崔忠日은 오는 16일 이곳에서 벌어질 동급챔피언인 필리핀의 롤란도·나바레테와의 15회전 세계타이틀매치를 갖기위해 2일 마닐라에 도착했다.

13전13승(12KO)의 전적을 갖고있는 崔忠日은 이날 徐順鍾매니저와함께 마닐라에 도착, 나바레테를 물리칠 자신이 있다고 호언하고 챔피언인 나바레테도 훌륭한 선수라고 추켜세웠다.

韓國팀 2연승거둬

청소년농구 日팀에

韓國청소년농구팀은 3일 奬忠체육관에서 벌어진 日本과의 2차전에서 鄭德和·許載의 후반활약으로 75-56으로 이겨 2연승을 기록했다.

韓國은 2일의 1차전에서도 86-73으로 낙승했었다.

韓國은 이날 전반 팀웍의 부조로 5분까지 10-2로 크게 뒤졌으나 鄭德和의 밀슛으로 14-14 타이를 이룬뒤 시소끝에 전반을 30-30으로 끝냈다.

후반들어 韓國은 許載의 중거리슛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5분 40-38로 리드를 잡고 75-56으로 쾌승했다.

◇전적 ▲2차전 韓國 75(45-30, 30-26)56 日本 ▲1차전 韓國 86-73 日本

黃忠載 12차전방어

도시나이 4回KO OPB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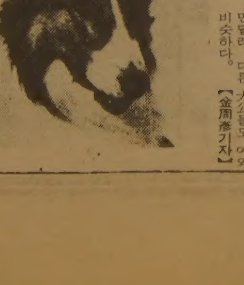
【釜山=聯】프로복싱 OPBF(동양 태평양권투연맹) 웰터급 챔피언 黃忠載는 3일 日本의 도시나이를 4회에 KO로 쓰러뜨리고 타이틀 12차방어에 성공했다.

스크린 누비는 名犬들

뛰어난 才能·감각… 富 한몸에
出演料 만弗에 스테이크 식사
개띠해맞아 시청자와 더욱 가까와질듯

◇호보

◇벤지



◇래시

새해는 壬戌年, 犬公들의 해이다.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친근한 犬公의 세계에도 사람못지않은 명성과 富를 누리는 犬公중의 犬公들이 있다. 호보, 래시, 벤지, 부머등의 이름을 가진犬公은 스크린을통해 또는 TV화면을 통해 귀여움과 재능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그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 이들 名犬들은 인간 이상의 재능과 감각으로 스타의 자리에 올라있기도하다.

MBC TV가 스타犬公을 주인공으로 한 「호보」시리즈를 방영하고 있고 KBS TV도 개띠해를 맞아 「벤지 시리즈」를준비함으로써 시청자들도 개와더욱 가까운 정을 나눌수있게 됐다. 개띠해를 앞두고 「犬公의 우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계적인 名犬의 세계를 알아본다.

영화에 등장하는 名물犬은 보통사람 못지않게 영리하고 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있다.

현재 MBC TV를 통해 방영되고있는 「호보」는 캐나다産 셰퍼드. 항상 혼자다니며 예속되기를 싫어하는 호보는 사람의 지능을 앞선다. 가난한 연인들을 도와주고 인연을 맺어주는가 하면 범죄조직을 잡아내는데 공을 세우기도 한다. 말을 못하는 대신 얼굴에 희노애락의 표정을 담아 사람과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명수사관으로 명성을 떨치기도하고 인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따뜻한 반려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상 혼자 다니는 호보. 호보는 개띠해의 영웅이다.

은막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犬公은 「犬公세계의 로렌스·올리비에」로 불리는 벤지. 벤지는 1세에 이어 2세까지 폭넓은 연기력을 이어받고있다. 벤지1세는 이미 14살이 넘어 오래전 은퇴했고 벤지2세(6살)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벤지는 코커스파니엘과 푸들의 잡종. 우리나라에도 영화로소개돼 얼굴을 익혔는데 75년 美國에서 제작된 영화 「벤지」는 흥행수익 3위를 올려 영화사를 돈방석에 앉히기까지 했다. 벤지2세가 지금까지출연한 영화는 「벤지의 사랑을위해」「오 헤븐리 도그」등과 TV스페셜이 있다. 벤지의 연기(?)는 명배우를 빰칠정도. 편지의 묘기는 수없이많다. 편지부치기, 눈가리고 로프위를 걸어가기, 앞발로 낚시줄감기등을 스스로 해낸다. 영화에서는 연필을들어 전화다이얼을 돌리기도하고 범인을 좇기도한다. 보통사람이 카메라앞에 서면 위축감을느끼지만 이들은 카메라공포증도 없다는것.

이밖에 오래전 前TBC TV를통해 방영되어 인기를모았던 「래시」도 있다. 「래시 시리즈」는 美國에서 18년이나 방영되었다. 부머란 犬公도 있는데 현재美NBC에서 맹활약중. 인기가 어느배우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犬公이 TV에 출연하여 인기를 모았던 적이있다. 76년 前TBC의 코미디프로 「좋았군 좋았어」에 주연으로 발탁된 독일산셰퍼드 「브리칸」. 개가 주인공으로 나선예는 우리나라에선 브리카가 처음이었는데 그럽마후사망하자 어린이 시청자들의 애도가빗발쳤다고.

이들 犬公들은 동물에게도 이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들이 「犬公의 우상」이 되기위해서는 자유시간을 많이 제한받고 피나는 훈련을 받는다. 그대신 이들에게는 사람부럽지 않은 대우와 인기와 부가 뒤따른다. 비행기로 세계각지를 여행하기도 하고 먹는 음식도 스테이크, 아이스크림등 고급으로 사람 못지않은 호강을 누린다.

이들이 받는 출연료도 대단하다. 벤지의 출연료는 1만달러. 다른 犬公들도 이와 비슷하다. 【金周彦기자】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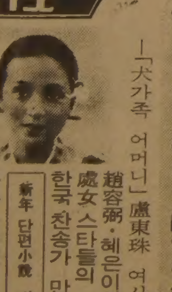
〈본보 취급 식품점〉

-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발송부

新年 특대호 주간女性



〈탤런트 盧知仁〉

우리집 개들 중엔 영화 紳士각정에 淑女도

—「犬가족 어머니」盧東珠 여사의「개禮讚」

趙容弼·혜은이의 新年 대담

處女스타들의「結婚 조건」

한국 찬송가 만든 羅運榮씨

新年 단편小說 새해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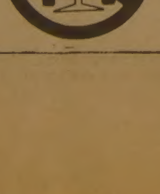
주부 金善東씨의「書道세계」

김진희씨의 文壇 지각 데뷔

女子배구 3총사 靑春 고백

世紀的 스캔들의 女王 엘리자베드·테일러 評傳

미모 國樂人 安香蓮씨의 죽도록 사랑해 全部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 3520. 630-8491

구 인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융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웨이추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착실하고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 : 742-0800
(렉소데일 & 이스링톤)

"송규석"씨 연락바람
충남 천원군 병천고등학교출신 김진영씨 요망.
연락처 : 몬트리얼(514)484-2906 조병화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3시30분~9시30분 ☎ : 598-1140.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 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 W.
☎ : 977-2164(Mr. 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도너스샵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9 : 00AM. (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 김)

도너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맥스 밀크 스토아에서 일하실 캐쉬어 구함.
1주일에 26시간
☎ : 244-5248

*성실하고 신체건강한 운전면허 소지자 남자분
*주6 일(WAGE : $350)
직접내방 바람. 고려식품

• 가게봐주실분 구함.
• 6412 YONGE ST.
☎ : 221-6544 Mr. 안

VAN DRIVER WANTED FOR SATURDAY ONLY
ROUTE-TORONTO WEST, PAY-$30 PER WEEK
SEE-ALL SCHOOL ☎ 960-0074, 441-2986

매매및 양도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급 매
뎀뿌라, 가마보꾸 제작기계 6점.
냉면기계 3점, 제분기계 1점(ALL NEW)
※기계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람
☎ : 862-0361(홍)

버라이에티 스토아 매(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 : 1+5년 아스킹 : $41000
☎ : 221-2084(Mr. LEE)

78년형 VAN(G.M.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 KIM)

DELICATESSEN & MEAT STORE FOR SALE 주매상 : $2,300 렌트 : $425
아스킹 : $23,000(모게지가능)☎ : 742-3216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몰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BRACEBRIDGE ONTARIO
주류면허 LLBO를 갖고 있으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와, 지불 기간에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을 팝니다.
Clarence La Bossiere
☎ : (705)325-4454 낮, (705)326-7468 밤

해밀톤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 ASKING $195,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90,000
• 주매상 $4,200 ASKING $152,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60,000
• 주매상 $4,000 다운페이 $50,000
건물포함 $159,000
• TUCK SHOP
주매상 $4,200. 좋은리스. 다운페이 $80,000
☎ : 1-662-4705. 1-662-7609
MONTREAL TRUST 전 병 호

부인혼자 할수있는 세탁소 매매(주매상 : $1,200
월세 : $500 리스 : 7년 가격 : $35,000)
오후4시이후 문의바람 ☎ : 423-7280

• 이사관계로 급매(미시사가지역)주5일 오픈
년매상 : $200,000 우유제품 제외
• 아스킹 : $30,000+스탁+설비.
☎ : 1-877-0634
(월. 화. 수. 토 오후7시이후 전화)
(목. 금. 일 오후9시이후 전화) ASK for JOE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극장옆 코너위치(로타리오 에이전트)
3344 YONGE ST. (직접 내방 요망)

구 혼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자동차 고장 ? ?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라지에타(개스탱크. 히터.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EDIATOR CO.
☎ : B)245-1978 R)248-6032 김용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 ?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용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을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illegible]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기 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8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하우스 렌트

독신자 원함 $170(MONTHLY)
RAPE SUBWAY에서 한 블럭 거리
☎ : 282-0236. 929-5531

낭비없는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에서!!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流星의 賦 <27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⑥

자기의 주변에 그런 책모가 태동하고있다는 것을 홍계남이 알 까닭이 없었다. 서툴게 수작하다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일본인들은 만사를 조심 조심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팔월 한가위, 통신사들은 악사들로 하여금 주악(奏樂)케 하고 망향의 마음을 달랬는데 그 이튿날 엉뚱한 일이 생겼다. 종의지(宗義智)가 사신들에게 와서 악사(樂士)를 빌어달라고 했다.

황윤길과 허성은 경도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여러가지 폐를 끼치고도 있으니 악사를 빌려주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성일이 딱 잘라 거절했다.

『아직 국서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악사들을 내돌릴 순 없소. 우리들은 놀러와 있는것이 아니고 국왕의 심부름으로 와 있는 것이오』

그러자 종의지는

『그럼 당신들은 왜 주악을 하고 놀았느냐』

고 따졌다. 김성일은

『객사 안에서 우리 것 갖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게 뭐 나쁘냐』

고 호통했다.

종의지는 무안을 당하고 돌아갔다.

종의지가 돌아가고 난 뒤 정사 황윤길이 김성일을 불러 말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에 그처럼 사사건건 [illegible] 하여 일을 벌이면 가장 중요한 일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니오. 그러나 앞으론 너무 거칠게 언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하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다니 그게 어째서 그렇게되는 일이오. 국서 전달 이전엔 우린 아무런 자랑도있어선 안될 것으로 아오. 만일 그들의 청에 유유나나 응하기라도 하면, 뒤에 무슨 억지를 쓸지 모르오. 사사건건 따끔하게 해야만 그들도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오. 상사 께옵서는 어떻게 그처럼 답답하옵니까』

하는 김성일의 말이었는데, 이 「답답하니까」 한 말이 불씨가 되었다.

황윤길이 얼굴을 벌겋게 노했다.

『답답하다니 누가 답답하단 말이오. 그까짓 악사들을 빌려주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일인양 거절하는 일이 답답한 일이오. 더구나 의주(儀注)에도없는 일을 가지고 왜 그러시유』

『의주 의주하지만 그 의주는 이나라의 사정을 모르고 만든 의주 아니오이까. 이나라의 사정을 알았으면 의주에 없는 것이라도 그 뒤치에 따라 해야 할것이 아니오이까. 의주에 없다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입니다』

하고 김성일은 지지 않았다.

『그럼 내가 잘 못했단 말인가?』

황윤길도 다도로 흥분했다.

이 옹수를 옆에서 듣고 있던 황진은

『악사를 빌려주고, 안빌려주고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일에도 의견이 맞지 않는 바로 그 꼴이 참 피스럽소』

하고 훌쩍 바깥으로 나와버렸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던 홍계남의 가슴 속에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기가 본 바, 듣는 바, 일본 사람의 거조(擧措)는 상하의 체통이 완연하고 화합 또한 기막힐 정도였다. 그런데 만리 타관에 와서 그 꼴이 뭐란 말인가. 일인 통사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중 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